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Analysis on the Career Identity Type and
Influential Factors of Education Major Students
in Four Year Universities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진경

국문초록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년

박진경

이 연구의 목적은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을 도출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며, 이들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는데 있었다.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사범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2016년 4월 기준으로 85,770명이다. 지역, 전공, 학년을 고려하여 층화군집비율 표집을 했으며, 7개 학교의 총 580명을 표집 하였다.

조사도구는 개인특성 변인, 전공특성 변인을 포함한 조사도구를 사용했으며, 각 변인별로 기존에 개발된 도구(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 진학동기, 전공만족도)를 사용하거나, 일부 변인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개발(희망직업, 경력개발센터 이용여부, 교육봉사 경험 여부, 임용고사 응시 의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사범대에 재직 중인 교수 및 재학 중인 학생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조사도구를 발송했으며, 협력자가 조사도구를 학생들에게 배부한 뒤 다시 회수하여 연구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580부의

조사도구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523부가 회수(90.2%)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자 및 이상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15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유효자료율은 83.3%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하위차원을 사용하여 진로결정 유형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진로탐색(광범위한 탐색, 구체적인 탐색), 진로전념(진로전념하기, 진로전념확신), 진로재고(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의 세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형 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진로정체감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은 6가지가 도출되었다. 선행연구 및 그 특성을 반영하여 성취형, 탐색유예형, 혼미형, 유실형, 방치형, 미분화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진로정체감이 긍정적인 유형인 성취형의 학생들은 전체의 14.8%에 불과하며, 진로정체감이 긍정적이지 않은 혼미형, 방치형, 미분화형의 비율이 전체의 약 53.7%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특성 변인(성별,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 기대, 진학동기, 희망직업), 전공특성 변인(전공 만족도, 경력개발센터 이용여부, 교육봉사 경험여부, 향후 임용고사 응시 의사)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각 변인에서 개인특성 변인 중 성별,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 기대, 진학동기, 희망직업, 전공특성

변인 중 전공 만족도,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 교육봉사 경험 여부, 임용고사 응시 예정 여부가 진로정체감의 유형의 차이에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성취형’ 유형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고 다른 비교집단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탐색유예형’ 유형 사이에서는 평가적지지, 진학동기, 사회적 인식 만족,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혼미형’ 유형 사이에서는 평가적지지, 진학동기, 사회적 인식 만족, 교육봉사 경험 여부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유실형’ 유형 사이에서는 평가적지지, 진학동기, 사회적 인식 만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방치형’ 유형 사이에서는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진학동기, 사회적 인식 만족, 교육봉사 경험 여부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미분화형’ 유형 사이에서는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진학동기, 사회적 인식 만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진로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 임용 수급 조절 등의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문제를 고려한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요인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과정 안에서의 진로정체감 양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중단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주요어: 사범계 대학생, 진로정체감 유형, 진로정체감 유형 영향요인, 2단계 군집분석, 다중 로지스틱 분석
학 번: 2015-21740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문제	4
4. 용어의 정의	4
5. 연구의 제한	5
II. 이론적 배경	7
1.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발달	7
2. 진로정체감 유형	11
3. 진로정체감 유형 영향요인	28
III. 연구방법	37
1. 연구설계	37
2. 연구대상	38
3. 조사도구	39
4. 자료수집	46
5. 자료 분석	48

IV. 연구결과 및 논의	50
1. 관찰변인의 기술 통계치	50
2. 사범계 대학생 진로정체감의 유형	51
3. 사범계 대학생 진로정체감의 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55
4. 연구결과에 관한 논의	74
V. 요약, 결론 및 제언	80
1. 요약	80
2. 결론	82
3. 제언	83
참고문헌	86
부록	99
Abstract	106

표 차례

〈표 II-1〉 2017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전형) 지원 현황 및 최종 경쟁률 ...7	7
〈표 II-2〉 학자 별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단계9	9
〈표 II-3〉 Marcia(1980) 정체감 유형 패러다임17	17
〈표 III-1〉 모집단 분포38	38
〈표 III-2〉 진로정체감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40	40
〈표 III-3〉 개인특성 변인의 문항 구성41	41
〈표 III-4〉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42	42
〈표 III-5〉 전공에 대한 직업 기대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42	42
〈표 III-6〉 전공특성 변인의 문항 구성44	44
〈표 III-7〉 전공만족도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44	44
〈표 III-8〉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47	47
〈표 IV-1〉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50	50
〈표 IV-2〉 군집화 일정표52	52
〈표 IV-3〉 6개 군집 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53	53
〈표 IV-4〉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한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 ...53	53
〈표 IV-5〉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56	56
〈표 IV-6〉 사회적지지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58	58
〈표 IV-7〉 전공에 대한 직업 기대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59	59
〈표 IV-8〉 진학동기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60	60
〈표 IV-9〉 희망직업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61	61

<표 IV-10> 전공 만족도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	62
<표 IV-11>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	63
<표 IV-12> 교육봉사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	65
<표 IV-13> 향후 임용고사 응시 의사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	65
<표 IV-14> 탐색유예형 vs. 성취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합	67
<표 IV-15> 혼미형 vs. 성취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합	68
<표 IV-16> 유실형 vs. 성취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합	69
<표 IV-17> 방치형 vs. 성취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합	70
<표 IV-18> 미분화형 vs. 성취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합	71
<표 IV-19> 진로정체감 유형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합	73

그림 차례

[그림 Ⅲ-1]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연구의 설계	…37
[그림 IV-1]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의 Z점수 분포	……………54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가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해 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등 우리의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고도로 복잡하고 세분화되었으며,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찾아가는 일은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특히,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청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에는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Super(1953)가 주장한 진로발달단계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탐색기 후반에 속하고 새로운 진로에 대한 선택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는 자아정체감을 성취하고, 자아상을 확립하며 자율과 심리적 독립의 성취라는 전인적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의 성공적인 발달과업 수행은 성인기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서, 개인의 대학생활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선택과 미래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pokane(1991)에 의하면 진로정체감이 미확립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맞지 않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전환을 자주 하는 등의 불안정한 직업 경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며. 또한 진로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으면 장기적 삶의 목표, 진학과 진로(취업)의 선택 등에서 자기의 생활방식이 정착되지 않고 혼란해져 고민하고,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김형태, 1989)고 하였다. 이에 반해 진로정체감을 확립한 경우에는 목표로 하는 직업의 수가 적으며 진로의사결정에 자신감을 가진다(김선환, 2007).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 보다는 대학 입학 그 자체에 중요성을 두고 입시를 준비해왔으며, 고교시절의 경쟁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체제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탐색이나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대학 입학 후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큰 고충을 겪는 학생이 많으며, 이러한 고충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사범계 대학생은 향후 진로를 교사로 전제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대학에 입학하였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범계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목표나 정체감이 분명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연구 결과 사범계 대학생들이 일반 대학생들보다 진로정체감 수준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김봉환, 1997), 다수의 학생들은 진로정체감 발달 단계의 선상에서 진로정체감이 제대로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버리는 조기완료의 상태를 보인다(조애리, 2012). 이런 경우 제대로 된 진로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벽을 느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하며, 이는 곧 진로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범대 학생들은 교사가 아닌 다른 길을 모색하고자 할 때, 일반대학에 비해 그 대안이 매우 제한적이고 학내의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사범계 대학생들은 장차 교사라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학창시절의 적극적인 진로탐색 및 발달을 통한 진로정체감 형성이 추후에 학생들의 진로지도 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사범계 대학생들에게 진로문제는 매우 현실적이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범계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김기정, 1997; 김병찬, 2003, 김진희, 2009).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사범계 대학생에게 자신의 진로정체감의 상태를 진단하고 성공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스스로가 자신과 주변환경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탐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사범계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정체감의 양상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진로정체감의 양상이라 함은 한 개인이 겪는 진로정체감을 진로탐색, 진로전념, 진로재고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라 진로정체감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파악하여 사범계 대학생이 겪는 진로정체감의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의 각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공가능한 진로개입의 요소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하위 차원을 통해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개인 특성 및 전공 특성이 진로정체감 유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진로상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넓게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과 안정적인 사회로의 진출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유형화하고, 진로정체감 유형과 영향요인과의 영향력을 구명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유형을 구분한다.

둘째, 국내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한다.

3. 연구문제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국내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어떻게 유형화 할 수 있는가?

1-1. 국내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1-2. 각 진로정체감 유형 집단 내 구성원들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국내 사범계 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과 영향요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1. 국내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별 개인, 전공 특성은 어떠한가?

2-2. 국내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별 개인, 전공 특성 중 진로정체감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가. 사범계 대학생

사범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1조에 의하면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를 둘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범계 대학생은 중등학교 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종합 대학 내에 설립된 하나의 단과 대학인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초등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교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나. 진로정체감 유형

진로정체감 유형이란 진로정체감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을 바탕으로, 각

측정 값을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류한 유형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VISA(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에 의하여 측정된 진로 정체감의 하위 차원인 진로탐색, 진로전념, 진로재고의 점수를 군집분석한 결과 도출된 유형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 정체감 유형을 성취형, 탐색유예형, 혼미형, 유실형, 방치형, 미분화형으로 구분하고 명명하였다.

다. 개인특성 변인

이 연구에서 개인특성 변인이란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과 관련된 영향 요인 가운데 개인특성을 지닌 변인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 기대, 진학동기, 희망직업으로 변인을 구성하였다.

라. 전공특성 변인

이 연구에서 전공특성 변인이란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과 관련된 영향 요인 가운데 전공특성을 지닌 변인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공만족도, 경력개발센터 이용, 교육봉사 경험, 향후 임용고사 응시 예정으로 변인을 구성하였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4년제 사범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모든 세부전공의 비율을 고려하여 표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할 때에는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발달

가. 사범대학 및 사범계 대학생

사범대학은 중등학교 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종합 대학 내에 설립된 하나의 단과 대학을 의미하는 단어로, 고등교육법 제41조에 의하면 ‘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을, 대학의 사범대학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를 둘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범계 대학생이란, 중등학교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등교원 양성기관은 4년제 대학의 사범대학,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작은 1927년 일부 전문학교에서 운영하는 임시 중등교원양성소였으며, 해방 후 국립 사범대 설립을 통해 교원을 양성하였으나, 늘어나는 교사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1954년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를 통해서 교직 진출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65년에는 교육대학원에서도 교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교원의 수급을 충당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등교원의 양성체계는 사범계 대학 뿐만 아니라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에서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원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이정우, 2004).

사범계 대학생들이 중등교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소위 임용고사라 불리는 시험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임용고사(중등교원)는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하 임용고사)”의 준말이다. 임용고사 응시를 위해서는 중등 교원자격증이 필요하며 이는 사범대학 졸업 혹은 일반대학 각 학과에 설치되어있는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거나 교육대학원 졸업을 통해 취득하여 임용고사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임용고사 응시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2017년도 기준 각 시도별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전형)의 최종 경쟁률은 서울 12.1:1, 부산 14.0:1, 대구 13.2:1, 인천 9.9:1, 광주 14.0:1, 대전 10.0:1, 울산 8.4:1, 세종 14.5:1, 경기 10.2:1, 강원 11.3:1, 충북 11.4:1, 충남 9.8:1, 전북 12.3:1, 전남 10.8:1, 경북 9.6:1, 경남 12.7:1, 제주 9.8:1로 17개 시도 가운데 대다수가 10:1을 상회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표 II-1> 2017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전형) 지원 현황 및 최종 경쟁률

지역	모집인원(일반)	지원자 누계	경쟁률
서울	658	7,976	12.1:1
부산	182	2,544	14.0:1
대구	229	3,013	13.2:1
인천	221	2,188	9.9:1
광주	55	767	14.0:1
대전	184	1,835	10.0:1
울산	78	652	8.4:1
세종	224	3,238	14.5:1
경기	1,157	11,834	10.2:1
강원	191	2,163	11.3:1
충북	241	2,919	11.4:1
충남	180	1,758	9.8:1
전북	203	2,500	12.3:1
전남	321	3,464	10.8:1
경북	101	971	9.6:1
경남	311	3,944	12.7:1
제주	67	711	9.8:1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모집인원이 일년에 5000여명 미만(17년도 4,603)이고, 사범계 대학생의 한 학년 평균이 2만여명임을 감안할 때, 임용시험의 모집인원은 사범계 대학생의 졸업인원을 충분히 흡수 할 수 없는 수이다. 또한, 중등교사의 임용시험에 일반대학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 졸업생까지 지원 가능하며, 현재까지 적체된 인원까지 고려할 때, 현재 교원 임용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판단할 수 있다.

나. 대학생의 진로발달

진로란 한 개인이 일생동안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한다. 진로를 전생애적 맥락으로서의 개념으로 고려할 때, 진로발달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수행하는 일회적인 발달과제라고 하기 보다는 일생에 걸쳐 수행되는 연속적인 발달과제이다. 따라서 개인은 한 번 결정한 진로를 지속적으로 평생 유지하기 보다는 진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채 끊임없는 진로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명확한 진로정체감의 형성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발달의 방향성을 점검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 진로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해나가는데 도움을 준다(Holland, Daiger, & Power, 1980).

여러 학자들의 진로발달이론을 살펴보면, 성인전기에 생계를 꾸리고, 직업을 선택하고, 경력을 쌓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기 때는 성장 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고등학교 시기 정도가 되면 보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에는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지하게 탐색하지만 아직은 그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경험은 없는 상태이다. 대학생이 되면 특정한 영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20대 중반 이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교육·훈련을 끝내고 직업을 갖게 되며, 이후의 성년기 기간 동안 특별한 영역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Vaillant(1977)에 따르면, 20~40대는 직업적 안정의 시기이며, 직업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진로에서 또한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해야한다고 하였다.

Ginzberg(1951)는 개인의 직업선택이 내적요인(욕구, 능력, 가치관, 흥미 등)와 외적요인(가정환경, 부모의 영향, 직업조건 등)과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Ginzberg의 진로발달 단계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의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대학생이 겪는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 현실기에 해당한다. 현실기는 탐색-구체화-특수화단계로

세분화되며, 탐색단계에서는 작업을 탐색하여 몇 개의 대안을 설정하고, 구체화단계에서는 특정 진로분야를 선택하고, 특수화단계에서는 특정한 진로분야에 맞는 직업이나 훈련과정을 선택한다.

Super(1953)는 진로를 삶을 구성하는 사건의 연속으로, 청년기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수행한 직위의 연속이며, 경제적인 의미에서 직업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다. Super는 Ginzberg 이론을 진로발달을 아동기부터 성인초기까지 고정시켜 일생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진로발달을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변화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Tideman과 O' Hara(1963)는 각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연령기가 정해져있다고 보지 않고, 진로발달을 진로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개인은 진로정체감을 발달시켜가는 지속적인 과정 안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혹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게 되며, 진로발달은 여러 차례의 결정을 통해 이룬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진학, 이직, 직업전환 등과 같은 진로 문제들 모두가 연령과 무관하게 일생에서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으며, 대학생 시기에도 이와 같은 과정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주요 진로발달이론을 통해 대학생의 발달 과업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I-2> 참조). 대학생의 시기는 진로의 범위가 점차 생애를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 되었으며, 한 번의 결정을 통해 진로를 고정하기보다 진로결정과 실행의 단계를 반복해나가는 순환의 개념으로 접근해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정지은, 2013).

<표 II-2> 학자 별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단계

학자	발달단계		특징
Ginzberg (1951)	현실기 (18- 24세)	탐색단계	직업을 탐색하여 몇 가지의 대안을 설정함
		구체화단계	특정 진로분야를 선택함
		특수화단계	특정한 진로분야에 맞는 직업이나 훈련과정을 선택함

학자	발달단계		특징
Super (1963)	탐색기 (15-24세)	잠정기	흥미, 가치 등을 고려한 잠정적인 진로선택을 함
		전환기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음
		시행기	자신에게 적합해 보이는 직업을 선택함
Tideman & O' Hara (1963)	예상기	탐색기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하며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에 대한 예비 평가를 실시함
		구체화기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함
		선택기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함
		명료화기	결정을 신중히 분석하고 검토 후에 결론을 내림
	실행기	순응기	새로운 집단이나 조직에 적응함
		개혁기	인정을 받은 후에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함
		통합기	조직의 요구와 자신의 욕구를 타협하고 통합함

다.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 문제

앞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진로탐색을 통하여 진로의 결정과 실행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길러야하는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 입학 전, 입시에 몰입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지 못한 상태로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상당 수의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 한 후에 진로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사범대 대학생들은 교원을 양성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결정이 조기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범대생들의 특징으로 교사가 되기 위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지 않고 사범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점과 대학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교사 임용’이라는 목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른 대안들에 대한 탐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김병찬, 2003). 사범대학은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이지만, 졸업생의 일부만이 교사가 되는 현실은 특수목적 대학으로서의 사범대학의 존재에 의문을 갖게 하며(이정우, 2004), 이는 곧 교사가 되고자 사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겪게하는 문제이다.

국내 대학생들의 진로의식 및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 중에서 특히 사범대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왔다. 김기정(1997)이 연구한 사립 4년제 사범대생 356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적응 및 취업전망에 관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사범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과정에서 교직진출의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입학당시나 지금이나 일관성 있게 교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은 약 42%였고, 일관성 있게 교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는 학생이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43%의 학생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교직진출의사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약 27%의 학생들이 입학당시에는 교사가 되고 싶었으나 학교생활 적응과정에서 생각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직에의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여 포기하였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44.8%였고, '교직사회에 대한 여론과 직업적 전망'과 같은 학교외적 요인이 69.8%에 달했다. 즉, 사범대 학생들은 다른 전공의 학생들보다 비교적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낮지 않은 비율의 사범대 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과정에서 '교직으로의 진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직진출의사가 바뀌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혔을 때, 이들이 잘 극복하고 자신의 진로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진로정체감 유형

가. 진로정체감의 개념

1) 자아정체감의 의미

자아정체감이란 용어는 자아정체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자아정체감(自我正體感)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본질

적으로 불변하는 실체로 인식하는 개인의 느낌(두산백과. “자아정체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5790&cid=40942&categoryId=31531>, (2016. 10. 31))’ 으로 나타나 있고, 자아정체성(自我正體性)은 자신을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체감이란 자기의 연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이고 또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아정체감이나 자아정체성 두가지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진로관련 선행연구(공인규, 2008; 김봉환, 1997; 김태선, 2003; 서유란, 이상희, 2012; 이형국, 2007, 2009)에서는 정체감이란 용어를 사용하므로(박아청, 2008) 이 연구에서도 정체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자아정체감의 의미를 살펴보면,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identity)이란 개인의 자아가 그의 인격체제 즉 자아, 초자아를 통합하는 방식에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동시에 자신의 자아통합(ego synthesis)의 방식이 자기가 타인에게 주는 개인적 의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인식해 나가는데 유효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identity)을 개인의 영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이며,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conscious sense of individual identity)이며,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속성과 단일성을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로 자아정체감이란 본인이 느끼는 자기와 타인이 아는 자기 사이에 통합된 인성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Erikson은 정체감의 개념을 단순한 이론적 구성개념으로 본 것이 아닌 그 현상적인 주관적 의식 경험을 강조하였고 자아개념의 통합성, 안정감, 명확성 및 관련된 감정들을 자아정체감으로 보았다. 이는 자아정체감의 의미를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Munley(1997)는 자아정체감(self identity)을 자신의 내적인 일치성이 타인·사회가 가지는 일치성과 연속성에 합쳐되어서 파생된 개인의 자

신감 또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느낌·인식, 즉 다양한 변화 속에서 개인이 인식해 가는 확신성 및 환경지각에 있어서의 내적 동일성과 연속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자아정체감의 의미를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Marcia(1980)에 의하면 정체감을 개인의 욕구, 능력, 신념 및 개인사의 내적이고 자기 구성적이며 역동적인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인간이 성장하면서 갖게 되는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 인생목표, 가치관 또는 이념 등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려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노력이라 하였다. 이는 자아정체감의 의미를 인지적 측면에서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Dignan(1965)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은 어떤 메카니즘에 의한 사전 형성이 아닌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성장과정에서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반영되는 종합적인 자아상 또는 자신을 묘사해 주는 자기 관련 이미지들(self-referent images)의 복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자아정체감의 의미를 주로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Hjelle과 Ziegler(1976)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을 여러가지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능력, 사회적 역할 속에서 하나의 자기를 찾으려는 자아통합의 과정이며 어떤 집단과의 동일시, 이념, 신념, 직업에 관여를 통해 자신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아정체감의 의미를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봉연(1994)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은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및 이념 등에 있어서 자기가 지니는 고유성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인식해 나가려는 의식·무의식의 노력이라고 했다. 이는 자아정체감의 의미를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배종훈(2001)은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선상과 가정·집단·사회의 공간 내의 나에 대한 일관성과 독특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였다. 이

러한 자기에 대한 인식, 즉 정체감 형성은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환경 영역(직업, 종교, 정치이념, 개인적 가치관 등)에 대한 부단한 탐색과 관여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자아정체감의 의미를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정체감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Dignan(1965)은 수용, 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대인관계로 보았고 Waterman(1982)은 자아정체감 개념의 복잡성을 언급하면서 자아정체감의 구성요인들로 첫째, 명확하게 자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둘째, 인생의 목표, 가치, 신념을 정립시키기 위한 관여, 셋째, 관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 행동의 존재여부, 넷째, 정체감에 대한 대안점을 찾기 위한 범위에 대한 고려, 다섯째, 자기수용의 정도, 여섯째, 개인적인 독특성에 대한 감각, 마지막으로 개인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2) 진로정체감의 의미

진로정체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자아정체감의 의미에 진로(career)에 대한 의미를 더해 함께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진로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진로(career)는 개인의 과거 경험, 현재 상황, 미래 기대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일생에 걸쳐 갖게 되는 직업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닌, 일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활동과 역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Arthur, Hall 및 Lawrence(1989)는 진로란 전 생애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개인의 일 경험이라고 정의하였으며, Herr와 Cramer(1996)도 진로를 일생동안 수행하는 역할의 총체라고 하였다. 한편, 진로라는 개념을 생애발달적인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한 Gysbers와 Moore(1981)는 진로란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 주변의 환경, 개인이 경험하는 사건들의 통합을 통한 전 생애에 걸친 자기개발이라고 정의하였다(최동선, 2003).

이와 같이 전 생애적 맥락으로서의 진로 개념을 고려할 때, 진로발달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수행하는 일회적인 발달과제라기보다는 일생에

걸쳐 수행하는 연속적인 발달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한 번 결정한 진로를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유지하기 보다는 진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채 끊임없이 진로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다면 개인이 자신의 진로발달의 방향성을 점검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 진로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Holland, Daiger, & Power, 1980).

진로정체감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은 Erickson(1963)의 자아정체감을 진로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한 개념을 시작으로 하여 변화 및 발전시켜 온 개념이다. 개인이 진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목표, 흥미, 능력 등에 대해 얼마나 명료하고 안정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진로발달의 인지적 측면(Holland, 1985)을 의미한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중요한 지침 또는 준거의 틀이 되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탐색, 발견 및 일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Tiedman과 O' Hara(1963)는 진로발달이 곧 진로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보고, 진로정체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제반 특성을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인식 또는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직업선택과 진로발달의 목표를 일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발달이라고 보고, 직업적 자아정체감이 개인의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인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분명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적절한 결정을 하도록 확신을 해주며, 비교적 만족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준다고 하였다.

Super(1963)는 어떠한 진로정체감을 가지고 있는지가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자기개념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 선택은 정체감 발달과 연결되어 있으며, 정체감 혼

란을 겪으면 진로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였다.

Holland와 Gottfredson, Power(1980)는 진로정체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얼마나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또는 자신이 진로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며, 이러한 특징은 문제없는 (untroubled)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며, 피할 수 없는 모호함 (ambiguity)에 직면했을 때 알맞은 결정을 내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김봉환(1997)은 진로정체감이란 자신의 성격, 흥미, 목표, 재능 등에 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상(image)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진로정체감을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와 관련된 목표설정과 자기주도성 (self-direction)에 대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용이하게 하며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Diemer & Blustein, 2007; Meeus, Dekovic, & Iedema, 1997; Meijers, 1998).

나. 진로정체감의 구성요소

과거 진로정체감은 여러 차원의 복합적인 구성체가 아닌 단일요인으로 간주하여 연구되어왔기 때문에 진로정체감을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진로정체감을 다차원적인 축을 이용하여 유형을 구분하게 되면 개인의 진로정체감 형성 과정 뿐만 아니라, 진로정체감 형성 수준의 개인차를 함께 진단가능하다.(유혜승, 2014).

Marcia(1980)의 정체감 유형 패러다임은 진로정체감 유형을 확인하는데 효과적인 틀로 작용하고 있다(Vodracek & Porfeli, 2003), Marcia(1980)는 자아정체감을 다양한 충동, 신념, 능력, 개인사의 내적이고 자기화된 역동적 체계, 즉 자기구조(self-structure)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핵심은 개인적 정체감의 내용 뿐만 아니라 형성의 과

정이다. Marcia는 반구조화 면접을 사용하여 직업에 대한 신념, 정치적 가치관, 종교적 이념, 성적 지향 등의 여러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아정체감을 구분하는 축은 자아정체감 형성과 위기 개념을 정교화하면서 의사결정 기간의 유무를 나타내는 위기(crisis)와 개인적 투자의 정도를 나타내는 관여(commitment)의 두 가지 차원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체감 성취(identity establishment), 정체감 유실(identity foreclosure), 정체감 혼미(identity diffusion), 정체감 유예(identity moratorium)의 네가지 유형을 구분하였다(김영화, 2010).

<표 II-3> Marcia(1980) 정체감 유형 패러다임

구분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미	정체감 유예
위기 (crisis)	있음	없음	있음 또는 없음	진행중
관여 (commitment)	있음	있음	없음	있으나 불명확함

이러한 Marcia(1980)의 정체감 유형 패러다임은 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패러다임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Marcia의 접근 방법은 Erikson의 정체감 이론을 검증하기에는 폭이 좁으며, 발달과정의 연속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역동적인 관점에서 Marcia의 패러다임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전개되었다(Bosma & Kunnen, 2001; Luyckx et al., 2008; Meeus, 1996; Waterman & Archer, 1990).

이러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 모형으로 요약 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Luyckx 모형(Luyckx et al., 2005; Luyckx et al., 2006; Luyckx et al., 2008)이며, 또 다른 하나는 Meeus와 Crocetti의 모형(crocetti, Klimstra, et al., 2009; Crocetti, Rubini, et al., 2008; Crocetti, Rubini, & Meeus, 2008; Crocetti, Schwartz, et al., 2010; Meeus,

1996)이다.

Luyckx 등(2008)은 이후 연구에서 반추적 탐색(ruminative exploration)이라는 세번째 차원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반추적 탐색은 선택을 망설이거나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걱정하고 의심하는 등 전념을 방해하는 것으로 전념하기 및 전념에 대한 확신과 부적인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러한 다섯 가지 차원을 적용하여 정체감 유형을 분류한 결과, Marcia에 의해 제안된 성취, 유실 유형을 포함하여 반추적 유예, 확산된 흥미, 무관심한 흥미, 미분화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취(achievement) 유형은 반추적 탐색은 낮은 반면, 나머지 탐색과 전념 차원의 점수는 모두 높은 특징이 있으며, 유실(foreclosure)은 전념 차원은 높고 탐색 차원, 특히 광범위한 탐색과 반추적 탐색의 점수는 낮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추적 유예(ruminative moratorium)는 전념 차원의 점수는 낮고 탐색 차원의 점수는 높은 특징이 있으며, 미분화(undifferentiated)는 모든 차원의 점수가 평균 수준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rocetti 등(2008)은 Meeus(1996)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Marcia의 패러다임을 확장시킨 정체감 형성 과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전념과 구체적인 탐색, 그리고 전념에 대한 재고를 정체감 형성의 핵심과정으로 고려하였다. 여기서 전념(commitment)은 특정 진로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 확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탐색(in-depth exploration)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보고, 정보를 찾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등 현재의 전념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전념에 대한 재고(reconsideration of commitment)는 현재의 전념과 다른 가능한 대안들을 비교하고 현재의 전념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을 의미한다. 전념에 대한 재고는 새로운 전념을 위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Marcia의 탐색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Marcia의 탐색 개념은 단지 새로운 전념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전념에 대한 재고는 새로운 전념이 이전의 전념을 대체할 것으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Marcia의 탐색

개념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Crocetti 등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탐색과 전념 및 재고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2요인 모형이 단일요인 모형이나 2요인 모형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정체감 형성 및 발달 연구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형에 의해 정체감 유형을 분류한 결과, Marcia의 성취, 유실, 혼미 유형과 더불어, 유예 유형이 유예(moratorium)와 탐색적 유예(searching maratorium)로 세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Crocetti et al., 2008). 구체적으로 성취유형은 전념과 구체적인 탐색은 높은 반면, 전념에 대한 재고는 낮은 특징이 있다. 유실 유형은 전념이 높고 구체적인 탐색은 보통이며 전념에 대한 재고는 낮은 특징이 있으며, 혼미 유형은 전념과 탐색 및 재고가 모두 낮은 특징이 있다. 유예 유형은 전념은 낮고 구체적인 탐색은 보통이며, 전념에 대한 재고는 높은 특징이 있다. 반면, 탐색적 유예유형은 전념과 탐색 및 재고가 모두 높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설명한 Luyckx 모형과 Meeus와 Crocetti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최근 Porfeli 등(2011)은 진로 영역에서의 정체감 유형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는 다차원 진로정체감 유형 평가 모형(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Marcia의 유형 패러다임에서 제안된 탐색과 전념 차원의 하위영역, 그리고 Meeus와 Crocetti에 의해 제안된 재고 차원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재고 차원의 구성요소를 확장시킨 진로자기의심과 진로유동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모형은 진로탐색, 진로전념, 진로재고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진로탐색 차원은 광범위한 진로탐색과 구체적인 진로탐색으로 진로전념 차원은 진로전념하기와 진로전념확신으로, 그리고 진로재고 차원은 진로자기의심과 진로유동성이라는 하위영역으로 세분화된다.

1)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

진로탐색은 자신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이러한 특성에 적합한 잠재적인 진로 대안들을 찾기 위해 자신과 일의 세계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Patton & Porfeli, 2007). 진로탐색은 가능성 있는 직업적 정체감에 대한 광범위하고 폭넓은 탐색으로부터 출발하여, 흥미, 가치, 삶의 목표 등과 같은 자신의 핵심적 특성 및 이러한 핵심적 특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는 구체적인 진로 기회에 관한 구체적이고 깊은 탐색의 증가로 진행된다(Porfeli, 2008).

진로탐색의 두 가지 형태인 광범위한 진로탐색과 구체적인 진로탐색은 차이가 있으며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orfeli & Lee, 2011). 광범위한 진로탐색은 특정한 진로를 선택하고 이러한 선택에 전념하기 이전에 다양한 진로 대안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Luyckx et al., 2006). 정체감을 확립해나가는 중인 청소년들은 광범위한 진로탐색 과정을 통해 여러 진로 대안들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거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진로를 선불리 선택하는 미성숙한 진로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Skorikov & Vondracek, 2007). 진로선택에의 접근에 있어서 유연성을 촉진하지만, 구체적인 탐색 경험 없이 광범위한 탐색 과정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진로 계획 및 진로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Porfeli & Skorikov, 2010). 또한, 불확실성이나 위기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념의 두 가지 차원인 전념하기 및 전념에 대한 확신과 부적의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적응과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Luyckx et al., 2006), 우울 증상이나 약물 남용과 같은 부적응적 지표들 및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uyckx et al., 2006).

한편, 구체적인 진로탐색은 개인의 현재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며, 현재의 전념을 유지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Meeus et

al., 2010). 즉, 구체적인 진로탐색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이러한 선택에 전념하기 위해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개인이 현재의 전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발히 다루어나가는가에 관한 것이다. 또한, 여러 광범위한 진로 대안들의 폭을 좁히고, 최종적인 진로에의 전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확고하고 명확한 진로정체감의 확립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탐색으로부터 구체적인 탐색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Porfeli & Lee, 2012).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구체적인 탐색은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rocetti et al., 2008). 먼저, 구체적인 탐색은 개인이 현재 전념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다루어나가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적응적인 정체감 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는 구체적인 탐색 과정이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같은 적응적인 성격 특질과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학업적 적응 및 지지적인 양육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진로 계획 및 진로에 대한 자신감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orfeli & Skorikov, 2010; Porfeli et al., 2011).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현재 선택 및 전념에 대한 생각과 평가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탐색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rocetti et al., 2008; Luyckx, et al., 2008). 일례로, 구체적 탐색이 자기개념 명확성 및 정서적 안정과 부적의 관련이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 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Crocetti et al., 2008; Meeus, 1996).

2) 진로전념(Career Commitment)

진로 전념은 진로에 대한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진로전념하기는 실제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념에 대한 확신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선택 수준의 증가는 개인의 적응과 진로성숙 및 학업적·직업적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reed et al., 2005; Earl & Bright, 2007), 이러한 결과는 진로전념이 긍정적인 과정임을 시사한다. 특히, 전념에 대한 확신은 후기 청소년들의 적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확신을 가지고 전념할 때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이다(Luyckx et al., 2006).

전념은 긍정적인 정체감 발달의 지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념은 명확하고 안정적인 자기개념, 정서적 안정, 사회적·학업적 적응, 외향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rocetti et al., 2008; Luyckx et al., 2006; Meeus, Iedem et al., 1999). 또한 전념은 지지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부모-자녀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체감 전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eeus et al., 2002; Samuols et al., 2001). 반면, 전념은 우울 및 불안,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독립과는 부적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uyckx et al., 2006).

전념은 구체적인 탐색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념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들의 현재 선택에 대한 탐색 또한 활발히 함을 시사한다(Crocetti et al., 2008). 이러한 맥락에서 Schwartz(2006, 2007)는 전념이 정체감 통합과 성공적인 정체감 발달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체감 유실 유형과 같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에 대한 진지한 탐색의 과정 없이 부모나 타인의 신념이나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여 진로선택을 하고 전념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전념의 역할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전념에 대한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며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Porfeli & Lee, 2012).

3) 진로재고(Career Reconsideration)

진로재고는 진로 선택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혹은 진로 선택을 변경하기 위하여 현재의 전념을 재검토하고 가능한 진로대안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재고는 청소년 시기로부터 그 이후에 지속되는 정체감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간주되며, 잠정적인 전념 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재고는 개인의 특정 진로 대해 전념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유동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으며, 종종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에서 비롯된 자기의심을 경험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전념의 증가는 재고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으나, 재고의 과정은 진로선택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 접근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보다 적합한 전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Porfeli et al., 2011).

부정적 측면에서 진로재고는 진로에 대한 자기의심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진로 자기의심은 현재의 진로에 대한 의심, 불안감, 걱정 등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선택을 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성향이다. 자기의심은 현재 진행 중인 진로전념 과정의 부정적 결과일 수 있으며, 구체적인 탐색을 방해하고 진로전념하기 및 전념에 대한 확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진로 자기의심은 만성적인 진로 미결정과 심리적 안녕감의 감소를 초래 할 수 있다(Germeijs et al., 2006).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의심, 혼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증가하며, 유예 유형과 혼미유형(Hunsberger, Pratt & Pancer, 2001; Porfeli, 2009)에 속한 사람들은 성취나 유실 유형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자기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서적 불안정 등과 같은 개인의 성격 특성이 자기의심과 관련이 있으며 진로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할 때, 유예와 혼미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자기의심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Porfeli et al., 2011).

한편, 긍정적인 측면에서 진로재고는 진로유동성에 의한 것일 수 있는데, 진로유동성은 다른 진로 대안들에 대해 활발히 지속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유동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진로 선택과 흥미, 가치가 변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대안적 진로에 대한 개방성을 반영한다, 진로 자기의심은 진로전념 과정에서의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며 진로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반면, 진로유동성은 전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이유를 함축하고 있다. 진로유동성은 광범위한 진로탐색 및 진로 자기의심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진로전념하기 및 진로전념에 대한 확신과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orfeli et al., 2011).

Crocetti 등(2008, 2010)은 전념에 대한 재고는 현재의 선택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전념의 대상을 찾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로 특징지어 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재고는 현재의 전념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결과적으로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과 부적으로 관련된다. 또한 재고는 친화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등과 같은 적응적 지표들과 부적인 관련이 있으며, 우울, 불안, 비행 행동에의 관여, 빈약한 가족 관계와는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ocetti et al., 2008; Crocetti et al., 2010). 특히, 전념에 대한 재고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부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탐색이 지적인 호기심의 결과라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 전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재고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적인 심리 문제 뿐만 아니라 비행 행동에의 관여와 같은 외재적인 문제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 전념하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목표, 가치, 신념을 찾는 것과 관련된 재고는 불안정과 고통을 동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Crocetti 외(2010)는 전념에 대한 재고는 정체감 형성의 위기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

다. 진로정체감 측정도구

1) 기존의 측정도구

진로정체감 척도로는 첫째, Holland와 Daiger 및 Power(1980)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MVS)의 하위 영역 중 VI(Vocational Identity Inventory Scale)가 있다. 이 척도에서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적인 상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김태선, 2003). VI척도는 자신의 진로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단일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진로정체감은 직업흥미, 자아개념, 의사결정, 진로행동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진로발달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Vondracek, 1992)고 하였다. 국내 대다수의 연구에서 이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둘째, Melgosa(1987)가 개발한 OIS(Occupational Identity Scale)가 있다. 이 척도의 구성요소는 정체감 성취(achievement), 정체감 유예(moratorium), 정체감 폐쇄(foreclosure), 정체감 혼미(diffusion)로 이루어졌다. 이는 자아정체감 수준을 측정한 것과 같이 진로정체감의 성취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구성내용을 보면 정체감 성취는 다양한 진로의 위기 및 탐색을 경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가치체계를 일관되게 가지고 안정감을 유지하며 행동하는 상태이며, 정체감 유예는 위기/탐색 상태로 진로를 찾고 있으며, 아직 수행 직전이지만 일시적으로 시험적인 행동만 하는 상태이며, 정체감 혼미는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탐색, 수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해결되지 않는 상태이다. 정체감 폐쇄는 위기/탐색 없이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마친 상태로 보았다.

셋째, 조은주(2001)가 Holland와 Daiger 및 Power(1980)의 진로정체감 척도와 전윤식, 이성해, 정영홍, 박선자, 김상구(1988)의 자아정체감 검사 및 박아청(1984)이 개편한 검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진로정체

감 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하위요인을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주장, 독특성, 자기존재의식으로 구성하였다. 구성 내용으로 안정성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시간의 경과와 유동적인 대인관계 속에서도 일관되고 동질적인 정도이며, 목표지향성은 자신의 인생목표가 무엇이며 자신의 행동 방향과 자신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 또는 실현하는 의지, 자기주장이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인식하고 타인에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태도와 경향성, 독특성은 자신의 현재의 능력, 신체적 심리적 특성 면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아상, 자기존재의식은 자신의 존재와 심리적 특징과 신체적 특성들에 대한 분명한 의식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김신정과 김성희(2012)의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구성요소를 진로정체감 인지, 정서, 행동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정체감 인지는 자신에 대한 이해 등의 인지적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진로정체감 정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자기상을 가지게 하는 정서적 내용으로, 진로정체감 행동은 진로정체감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적인 행동의 관여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개념으로 행동, 실천 등으로 이루어졌다.

2) VISA(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ment)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

다차원 진로정체감 유형 모형은 진로영역에서의 정체감인 진로정체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기존 Marcia의 정체감 유형 패러다임을 보다 확장시키고 정교화한 모형이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 제안된 진로탐색, 진로전념, 진로재고의 세 차원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탐색, 구체적 탐색, 진로전념하기, 진로전념확신, 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의 조합에 의해 진로정체감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복합적인 구성체인 진로정체감 유형을 여러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게 해주며 개인의 진로정체감 발달 상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유혜승, 2014).

다차원 진로정체감 유형 평가 모형(VISA)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진로정체감 유형을 분류한 Porfeli 등(2011)의 연구에서 Marcia의 네가지 정체감 유형에 탐색적 유예와 미분화가 추가된 6가지의 진로정체감 유형이 확인되었다. 진로정체감 성취 유형은 진로탐색과 진로전념 차원의 점수는 높고, 진로재고 차원의 점수는 낮은 양상을 보인다. 유예 유형은 진로탐색과 진로재고 차원의 점수는 비교적 높으나, 진로전념 차원의 점수는 낮다. 탐색적 유예 유형은 진로전념과 탐색 및 재고 차원의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 진로전념 차원의 점수가 낮은 유예 유형과 구별된다. 또한 탐색적 유예는 진로 자기의심과 진로유동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특성이 있다. 탐색적 유예 유형은 유예-성취-유예-성취(MAMA) 주기와 유사하게 성취와 유예 사이를 오가며 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영하는 유형으로, 과거에 진로정체감 성취 유형에 있었다더라도 진로선택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고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유실 유형은 진로전념 차원의 두 하위영역과 진로탐색 차원의 하위영역인 구체적 탐색 점수는 높고, 광범위한 탐색과 진로재고 차원의 점수는 낮은 양상을 나타냈다. 혼미 유형은 진로재고 차원의 점수는 높고 진로탐색과 진로전념 차원의 점수는 낮다. 미분화 유형은 모든 차원의 점수가 평균 정도로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진로정체감 유형에 따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를 제외한 우울과 불안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취와 혼미, 성취와 탐색적 유예 유형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취 유형은 우울과 불안이 낮은 반면, 혼미와 탐색적 유예 유형은 우울과 불안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유실과 미분화 유형은 성취 유형과 유사한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나타냈으며, 유예 유형은 비교적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orfeli et al., 2011).

3. 진로정체감 유형 영향요인

가. 개인특성 변인

1) 성별

지금까지 보고된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성차는 개인의 진로관련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Luzzo, 2011). Betz, Harmon과 Borgen(1996)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성차의 효과에 대하여 역설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주요 진로발달 변인에 대한 성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유현실, 2014).

성별에 따른 진로역량은 주로 여성의 진로장벽 개념에 의해 설명되어 왔는데(Swanson & Woitke, 1997), 진로장벽의 개념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들이 진로포부에 제한을 받고 능력에 비해 성취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Fitzgerald & Crites, 1980). 여성들이 느끼는 진로장벽의 바탕에는 남성은 결혼을 하면 무조건 가정경제를 책임져야한다는 인식과, 여성은 결혼을 하면 임신과 출산, 양육을 남성보다 더 담당해야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깔려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진로결정과정은 남성에게 비해 더 복잡하고 독특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된 바 있다(박혜경, 201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진로관련 연구들에서는 위의 논지를 뒷받침 하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장이슬(2015)은 는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이 인지한 진로장벽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비슷하게, 이현주(200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적 대인관계 불안의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수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진로정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연, 민경석(2011) 역시 남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여학생의 진로정체감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비록 사범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관련 요인의 성차를 살펴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자명, 두경희(2015)는 예비교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남녀가 느끼는 진로장벽의 차이를 추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역할기대의 요인인 배우자, 부모, 자녀, 가사분담, 경제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여학생이 느끼는 기대감이 남학생이 느끼는 기대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범계 대학생 역시도 남녀가 느끼는 사회적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으로 하여금 진로결정을 어렵게 느끼도록 한다는 논의가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사범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느끼는 진로정체감이 여학생이 느끼는 진로정체감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2)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르다.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의 결과로 정의하였으며, Cohen과 Hoberman(1983)은 한 개인이 그가 형성하고있는 대인관계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Kahn과 Antonucci(1980)는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정서적 관심, 유효한 원조, 환경에 대한 정보 및 평가를 포함하는 관계를 사회적 지지로, House(1981)는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한 대인 간의 교류로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였다. Schwarzer, Knoll, & Rieckmann(2004)은 지지해주는 특정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특정인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 및 조언,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사회적 지지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보다는 기능적 특성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의 다차원적 기능을 반영한다. 즉, 사회적 지지란 타인에 의해 제공되거나 얻을 수 있는 다차원의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은 개인이 맺고있는 대인관계가 얼마나 다양한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구조적

특성과 달리, 사회적 지지를 타인과의 신뢰관계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 보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기존연구의 하위요인 분류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 평가적 지지(appraisal support)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House, 1981). 정서적 지지는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것이며, 도구적 지지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구나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평가적 지지는 개인의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1995년 MOS(Medical Outcomes Study) 연구팀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긍정적 정서의 표현, 감정표출의 격려, 감정이입적 이해)와 정보적 지지(정보, 조언 지침 또는 피드백의 제공), 구체적 지지(물질적 혹은 행동적 보조를 제공), 긍정적인 상호작용(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이용 가능성), 애정적지지(사람과 애정의 표현을 포함)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은 각각의 하위개념들이 서로 긴밀하게 다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목적과 기능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능을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설명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Wethington과 Kessler(1986)는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실제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와의 차이를 설명하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제공받은 지지에 비하여 행동을 예언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보다는 개인에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게 판단되며,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는 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각하지 못할 경우에 사회적 지지의 가치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개인에서 지각된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선행연구를 통해 봤을 때(송중용, 1988), 개인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의 가치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의 적응을 촉진한다. 삶의 균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심리학과 행동과학 분야에서 예방심리학 차원에서 다루어졌다(김성남, 2005). 개인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대학생은 과도기적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대학생활에서 심리적 변화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변화까지 동반하게 되면서 기존의 지지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며, 새로운 지지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적응에 있어 외적인 지지자원의 유무는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mpas, 1987). 또한 사회적 지지는 학교 부적응에 대한 완충 및 예방의 역할을 하여(Demaray & Malecki, 2002),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리적 과도기 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적응을 돕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나가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Johnson, Buboltz, & Nichols(1999)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 정체감 형성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Vignoli 외(2006)는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해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는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같은 진로에 대한 자기관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정규(2006)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정체감과 유관함을 밝혔는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평가적 지지가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정체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부의 지지에서는 자신의 이해가, 모의 지지에서는 능력의 자신감이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영(200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진로정체감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안정성

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나,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 주장성, 자기존재 의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경선(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정체감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4개의 하위변인과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에서 평가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연구한 이현주(2010)와 손보영, 윤민지, 박소현, 임제희(2013)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필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는데,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지지가 진로정체감 발달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지지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진로결정을 위한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비록 사범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학생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추해볼 때, 사회적 지지가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

전공 관련 직업 기대란 자신이 현재 소속된 전공학과가 자신의 삶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하는지 등을 묻는 변인이다. Hogg & Turner(1987)는 한 조직이 조직 구성원에게 다양한 멤버십을 제공하는 것처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는 대학교 자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은 인지적으로 조직 위상이 높은 조직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전공에 대한 기대 충족은 대학생들에게는 외적 보상 뿐 아니라 내적 보상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으로 인한 욕구의 충족은 개인의 진로결정을 위한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비록 사범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학생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때,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가 진로 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진학동기

상급학교로의 진학 시, 학교나 전공 선택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 요인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나눌 수 있는데, 외재적 동기 요인에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 즉, 부모, 은사, 또래집단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내재적 동기 요인으로는 전공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적성, 소질 등이 있을 수 있다(이상준, 2013).

내재적 동기는 외재적 동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보상을 위해서가 아닌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은 외재적 동기화에 따른 문제점들에 의해 부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서 외재적 보상으로 인간을 동기화 시키면 능동적으로 환경을 탐색하는 인간의 능력이 제한되며, 보상이 중단되면 관련 행동도 중단될 수 있으며, 활동자체보다는 보상에만 관심을 갖게되며, 내재적 동기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들이 제기되어 왔다(한덕웅, 1984).

사범계 대학생들의 사범대 진학 동기에 대해서 연구한 김병찬(2003)에 따르면, 사범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이 교직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결과도 있지만, 기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사가 되고자 하는 뚜렷한 동기를 가진 학생은 큰 진로장벽에 부딪히지 않는 한 교직이라는 목표를 향해 큰 갈등없이 학업을 이어나가지만, 뚜렷한 동기를 갖지 않고 지원한 학생들은 진로문제를 겪을 확률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사범대 대학생들의 진로변화 과정에 대해서 연구한 유기웅(2011)에 따르면 진학동기가 외적동기에 의해서거나 막연한 동기 없이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 진학한 경우 진로변화 과정을 겪을 확률이 크다고 하였다. 이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범계 대학생들이 어떤 진학 동

기를 가지고 입학했으나에 따라 진로정체감이 다르게 형성될 것이고,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입학한 학생이 진로정체감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5) 희망직업

사범계 대학생이 진로변화를 겪는 이유 중 하나는 현실 직시, 부족한 동기, 주변인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교직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입학한 학생들이 진로 장벽을 겪고 진로를 포기함으로써 진로정체성의 혼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동엽, 김사훈, 2015). 또한, 처음부터 교직을 생각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일지라도 다른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희망직업이 교사인지, 비교사인지, 미결정인지에 따라 진로정체감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희망직업을 교사, 비교사, 미결정 등으로 조사한 후 그에 따라 진로정체감의 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나. 전공특성 변인

1) 전공만족도

대학에서의 전공학과는 자신의 미래의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전공만족은 앞으로의 진로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DeVoge, 1975; Logue, 2005). 전공만족은 개인이 속한 전공 내의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외적인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인의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얻게되는 즐거운 감정적인 상태나 태도, 신념, 가치 또는 욕구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많은 학자들의 전공만족에 대한 개념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전공만족을 진로결정의 예측요인으로 인지하고 전공만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공학과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전공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전공학과와 관련 학문과의 차별성과 학과목 개발을 위해 전공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즉,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학생을 사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Johnson, 1997; Tontonado, 2006). 셋째, 학과 만족 요인이 대학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들이 있다(김계현 외, 1995; 하혜숙, 2000). 이들의 연구는 학과에 만족하지 않은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생활에 적응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연구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학이 주는 표면적인 외적가치에 초점을 두고 전공을 선택한 후에, 대학 입학 후 전공에 대한 부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경력개발센터 이용

대학생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체제는 각 대학마다 설치된 취업 및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홍보의 부족, 취업정보의 부족, 낮은 신뢰도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접근성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을 양성해야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범대에서는 교직 이외의 타 직종으로 진로지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오기도 했었으며, 교직 이외의 직업에 대한 안내와 취업 교육을 하는 것이 존재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기도 하다(유기웅, 2011).

사범계 대학생들 가운데 향후 진로를 비교사로 설정하였거나 아직 미정 상태인 학생들은 진로탐색 및 진로재고에 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각 진로정체감 유형별로 경력개발센터의 이용 여부를 살펴봄으로서, 실제 진로정체감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3) 교육봉사 경험

교육봉사는 교원양성기관 혹은 교직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에서 예비교원들에게 교육현장에서 교수활동을 비롯한 현직 교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체계적이고 제한된 경험으로 인하여 교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교육봉사를 통해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대한 고민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여 자질에 대한 부족함을 경계하여 진로 변경의 촉발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유기웅, 2011).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겪은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재고를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들에게 교육봉사의 경험을 묻고, 그것이 진로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4) 향후 임용고사 응시 예정

임용고사는 사범계 대학생들이 느끼는 큰 진로 장벽 중 하나이다. 임용고사 합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처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중 교직의 꿈을 포기하는 등의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 현상의 구조적인 원인은 사범대학 인원과 임용 정원의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임용고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일찍 다른 대안을 찾아 새로운 진로를 탐색해나간다.

김진희(2009)에 따르면 교원임용시험 합격 실태와 교사 이외의 취업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졸업생 대비 임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용고사를 중도 포기하거나 교직으로 진출할 의사가 없는 학생이 진로문제를 겪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향후 임용고사 응시 여부를 파악하여 각 진로정체감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유형화하고,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크게 ① 진로정체감 유형화, ② 진로정체감 유형 영향 요인 구명의 2 단계로 진행되었다([그림 III-1] 참조).

1단계	◎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화	
	▶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 수 결정	군집분석(Ward 방식)
	▶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 형성	군집분석 (K-Means clustering)
2단계	◎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 영향요인 분석	
	▶ 진로정체감 유형 별 특징 분석	기술통계
	▶ 영향요인 집단 간 차이분석 - 개인특성 변인: 성별,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 진학동기, 희망직업 - 전공특성 변인: 전공만족도,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 교육봉사 경험 여부, 향후 임용고사 응시에정 여부	카이제곱검정, F검정
	▶ 유의미한 변인을 바탕으로 유형별 영향력 검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림 III-1]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연구의 설계

진로정체감 유형화 단계에서는 먼저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능 한지를 확인하였다. 진로정체감의 3가지 하위 차원인 진로탐색, 진로전념, 진로재고 및 각 차원의 하위요소인 광범위한 진로탐색, 구체적인 진로탐색, 진로전념하기, 진로전념확신, 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을 바탕으로 2단계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하였다. 유형화 한 후에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을 구성하는 하위요소의 통계량에 따라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로는 도출된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고자 선행연구결과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변인을 선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및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투입한 변인은 개인특성 변인(성별,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 진학동기, 희망직업), 전공특성 변인(경력개발센터 이용여부, 교육봉사 경험여부, 임용고사 응시예정 여부)이다. 그 후, 차이가 있는 유의미한 변인을 중심으로 진로정체감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가. 모집단

연구의 모집단은 현재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서 2016년 교육통계연보를 참고하여 교육계열에 재학생 수를 바탕으로 그 수를 추정할 수 있다. 교육계열은 교육일반, 유아교육, 특수교육학,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나뉘어져 있다.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와는 별도의 대상으로 분리하여 통계가 제공된다. 즉, 교육대학의 인원을 제외한 교육계열의 인원을 사범대학 재학 인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성별, 학교소재지, 지역, 계열 별 인원 수는 다음과 같다(<표 III-1> 참조).

<표 III-1> 모집단 분포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34,923	40.7
	여	50,847	59.3
계		85,770	100.0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년	1학년	19,258	22.5
	2학년	23,788	27.7
	3학년	20,545	24.0
	4학년	22,179	25.9
계		85,770	100.0
학교소재지	수도권	25,590	29.8
	비수도권	60,180	70.2
계		85,770	100.0

나. 표집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학교소재지, 전공계열 등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모집단의 비율을 고려하여 수도권: 비수도권을 1:2.3의 비율로 수도권 3개교(180명), 비수도권 4개교(400명)의 총 7개교의 사범대 내의 학과들을 모두 표집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가운데에서 성비와 학년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을 구명하고 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진로정체감, 개인특성 변인, 전공특성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구성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5점 척도,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진로정체감

이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porfeli(2009)에 의해 개발되고, Porfeli 외(2011)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도구를 한국의 상황에도

타당한지 검증한 이보라 외(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정된 측정문항을 진로교육 분야 교수 1인과 박사수료생 1인, 박사과정생 1인에게 내용을 검토 받았으며, 모든 문항의 응답범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한 결과 예비조사에서 0.690, 본 조사에서 0.710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표 III-2> 진로정체감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구분	문항 번호	내적일치도(Cronach' s α)	
		예비조사(n=40)	본 조사(n=515)
진로정체감		.690	.710
진로탐색	-	.756	.710
광범위한 탐색	1,8,14,21	.638	.771
구체적인 탐색	2,9,10,15,22	.803	.705
진로전념		.836	.714
진로 전념하기	3,4,16,23	.747	.708
진로 전념확신	11,17,18,24,25	.678	.824
진로재고		.819	.751
진로자기의심	5,12,19,26	.751	.729
진로유동성	6,7,13,20,27	.763	.853

나. 개인특성 변인

사범계 대학생의 개인특성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 진학동기, 희망직업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표 III-3> 개인특성 변인의 문항 구성

변인명	문항 수	문항범주
성별	1	① 남성 ② 여성
사회적지지	25	1-5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	4	1-5
진학동기	1	① 적성 ② 가치 ③ 안정성 ④ 타인의 권유 ⑤ 부모님의 기대 충족 ⑥ 성적 ⑦ 기타
희망직업	1	개방형

1) 성별

성별은 남, 여로 구분한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더미 변인화 한 후 값을 부여하였다.

2) 사회적지지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연수(1995)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각 문항은 조사대상자가 그들의 비공식적 지지 체계인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사람들의 타인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측면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질문지에 있어 지지 체계를 가족, 친구, 교수 및 선후배 등으로 설정하여 보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사랑, 이해, 신뢰, 격려, 관심 등의 정서적 지지,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 지지, 필요한 돈, 물건 등을 제공해 주는 물질적 지지, 칭찬이나 인정 등 자신을 평가해 주는 평가적 지지의 4 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 반응양식은 ‘모두 그렇지 않다(1점)’에서 ‘모두 그렇다(5점)’까

지의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s α 값을 확인한 결과 예비조사에서 0.973, 본 조사에서 0.959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표 III-4>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구분	문항 번호	내적일치도(Cronach' s α)	
		예비조사(n=40)	본 조사(n=515)
사회적 지지	-	.973	.959
정서적 지지	1,6,7,10,16,18,24	.916	.872
정보적 지지	8,14,17,19,22,25	.917	.871
물질적 지지	3,9,13,15,20,23	.864	.835
평가적 지지	2,4,5,11,12,21	.924	.858

3) 전공에 대한 직업 기대

전공에 대한 직업 기대는 개인이 인식하는 직업위상과 직업의 장래성 측정하기 위함이며, 검사도구로는 Buchanan(1974)의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 도구를 국내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김원형(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4문항이며, 응답 반응 양식은 ‘모두 그렇지 않다(1점)’에서 ‘모두 그렇다(5점)’까지의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s α 값을 확인한 결과 예비조사에서 0.749, 본 조사에서 0.792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표 III-5> 전공에 대한 직업 기대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 번호	내적일치도(Cronach' s α)	
		예비조사(n=40)	본 조사(n=515)
전공에 대한 직업 기대	1,2,3,4	.749	.792

4) 진학동기

진학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패널조사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대학진학동기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기존 문항을 재구조화하여 ①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기 때문에, ② 가르치는 일은 가치있다고 생각하므로, ③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인기 때문에, ④ 타인(부모님, 선생님 등)의 권유에 의해, ⑤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⑥ 성적에 맞춰서 ⑦ 기타의 7가지 보기로 구성하였다.

실제 차이분석에는 내재적 동기(①,②), 외재적 동기(③,④,⑤,⑥), 기타(⑦)로 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에는 내재적동기는 1, 외재적동기 및 기타를 0으로 더미 변인화하였다.

5) 희망직업

희망직업은 이동엽, 김사훈(2015)의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범계 대학생의 향후 희망직업이 교사인지, 비교사인지, 미정인지 여부에 따라 진로정체감의 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희망직업은 대학 졸업 후 향후 직업으로 교사를 희망하는지 묻기 위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개방형으로 묻고 연구자가 응답 값을 확인하여 교사, 비교사, 미정으로 코딩하였다.

다. 전공특성 변인

사범계 대학생의 전공특성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전공, 복수전공, 전공만족도, 경력개발센터 이용, 교육봉사 경험, 향후 임용고사 응시 여부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표 III-6> 전공특성 변인의 문항 구성

변인명	문항 수	문항범주
전공만족도	13	1-5
경력개발센터 이용	1	1-2
교육봉사 경험	1	1-2
향후 임용고사 응시 예정	1	1-2

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와 Braskamp, Wise&Henstler(1979)가 대학생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학과평가조사지를 활용하였다. 이 검사지를 하혜숙(2000)이 참고하여 개발한 학과만족도 중 일반만족요인 6개 문항과 인식만족요인 7개 문항을 택하여 총 1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하혜숙(2000)의 연구에서의 전공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일반적 관심에 대한 만족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에서 Cronbach' s $\alpha = .89$ 로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s α 값을 확인한 결과는 예비조사에서 0.849, 본 조사에서 0.912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표 III-7> 전공만족도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 번호	내적일치도(Cronach' s α)	
		예비조사(n=40)	본 조사(n=225)
전공만족도		.849	.912
일반적 관심에 대한 만족	1,2,3,4,5,6	.821	.858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7,8,9,10,11,12,13	.744	.857

2) 경력개발센터 이용

경력개발센터 이용은 그 여부에 따라 진로정체감 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다. 경력개발센터 이용은 재학 중 경력개발센터 이용하였는지를 여부를 묻는 이분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용한 적이 있음 1, 이용한 적이 없음은 0으로 더미 변인화하여 사용하였다.

3) 교육봉사 경험

교육봉사의 경험 유무 및 경험의 질에 따라 학생들이 교사라는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갖거나 재고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유기웅, 2011). 따라서 교육봉사 경험 여부에 따라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봉사 경험은 재학 중 교육봉사 경험 여부를 묻는 이분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봉사 경험 있음 1, 교육봉사 경험 없음 0으로 더미 변인화하여 사용하였다.

4) 향후 임용고사 응시 예정

김진희(2009)에 따르면 교원임용시험 합격 실패 및 교사 이외의 취업 실패 등을 조사한 결과, 임용을 중도 포기하거나 교직 외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진로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향후 임용고사 응시 예정 여부에 따라 사범계 대학생 진로정체감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향후 임용고사 응시 예정은 응시 예정 여부를 구분한 이분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시한다는 1, 응시하지 않는다는 0으로 더미 변인화하여 사용하였다.

4. 자료수집

설문조사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였으며,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현재 사범대에 재직 중인 교수와 재학 중인 학생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우편을 통해 인쇄된 조사도구를 발송하고, 협력자가 조사도구를 학생들에게 배부한 뒤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580부의 조사도구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회수된 조사도구는 523부(90.2%)이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과 자료누락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515부(83.3%)를 분석에 활용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통해 설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수집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전공 계열 및 학년 별로 균형있는 표본이 수집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III-9>와 같다.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성 194명(37.7%), 여성 321명(62.3%)으로 여성의 비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 164명(31.8%), 2학년 80명(15.5%), 3학년 149명(28.9%), 4학년 이상 122명(23.7%)로 1학년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재학 중인 학교 설립유형은 국·공립 258명(50.1%), 사립이 257명(49.9%)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는 수도권이 173(33.6%)명, 비수도권이 257(49.9%)명으로 비수도권의 비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전공을 KEDI의 교육계열의 소계열 형태로 구분한 결과, 교육학 96명(18.6%), 언어교육 139명(27.0%), 사회교육 124명(24.1%), 자연계 교육 71명(13.8%), 특수교육 17명(3.3%), 공학교육 13명(2.5%), 인문교육 4명(0.8%), 예체능교육 49명(9.5%), 유아교육 2명(0.4%)이었으며, 복수전공은 사범계열 이수 52명(10.1%), 비사범계열 이수 61명(11.8), 이수안함 164명(31.8%), 미신청 238명(4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94	37.7
	여성	321	62.3
학년	1학년	164	31.8
	2학년	80	15.5
	3학년	149	28.9
	4학년 이상	122	23.7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	258	50.1
	사립	257	49.9
학교소재지	수도권	173	33.6
	비수도권	342	66.4
주전공	교육학	96	18.6
	언어교육	139	27.0
	사회교육	124	24.1
	자연계 교육	71	13.8
	공학교육	13	2.5
	인문교육	4	0.8
	유아교육	2	0.4
	특수교육	17	3.3
	예체능교육	49	9.5
복수전공	사범계열 이수	52	10.1
	비사범계열 이수	61	11.8
	이수 안함	164	31.8
	미신청	238	46.2
계		515	100.0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5%로 설정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군집분석, 집단 간 차이 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을 활용하여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통해 각 변인의 수준 및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 후,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2단계 절차를 이용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Wards 방법 및 제곱 유클리디안(Squared Euclidean)거리를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개별 대상 간의 거리에 의하여 가장 근접해있는 유사한 속성의 대상들로부터 시작하여 결합해 감으로써 나무 모양의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군집분석은 한 대상이 어느 특정 군집에 소속되면 이후 군집의 수가 증가하게 될 때 다른 군집으로 대상을 보다 적절하게 재배치하기 어렵다는 점(Johnson & Wichern, 1992; Sireci, Robin, & Patelis, 1999)과 모든 값이 일단 어느 군집에 필수적으로 소속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단계로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케이스들을 군집화 하였다. K-평균 군집분석은 먼저 하나의 군집 씨앗(cluster seed)이 형성되어 사전에 설정된 한계거리(threshold distance)이내의 대상들이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된다. 만약 하나의 대상이 사전에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되더라도 새롭게 설정된 군집씨앗에 보다 근접하게 되면 소속 군집이 새로운 군집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K개의 군집이 도출될 때까지 K개의 군집씨앗을 중심으로 군집화가 계속 진행된다. K-평균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가 몇 개인지를 연구자가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Gatignon, 2010).

이러한 군집분석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1단계 군집 분석을 통해 적절한 유형 수를 결정하고, 그 유형 수에 따라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에 대한 군집을 도출하였다.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이 도출된 후에는 진로정체감 유형과 진로정체감 관련 요인 간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과 F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검정과 F검정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도출된 변인을 다중 로지스틱 분석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사범계 대학생의 각 유형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다항명목 로지스틱 분석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확장한 개념으로 종속변인이 명목형 변인이면서 집단 범주가 3개 이상인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독립변인은 연속형 변인과 명목형 변인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독립변인이 모두 명목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χ^2 검증을 주로 사용한다(채구목, 2013).

이항명목 로지스틱 분석의 식은 아래와 같은데 종속변인이 2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 p 와 일어나지 않은 확률 $1-p$ 를 대비시킨다.

$$\ln\left(\frac{p}{1-p}\right) = a + b_1X_1 + b_2X_2 + \dots + b_kX_k$$

반면 다항명목 로지스틱 분석은 종속변인이 3개 이상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과 다른 사건을 대비시키게 되는데 이 특정 사건을 기준집단(reference)이라 부르며, 어떤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결과 해석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준집단 설정이 중요하다.

$$\ln\left(\frac{P_A}{P_c}\right) = a_{A0} + b_{A1}X_{A1} + b_{A2}X_{A2} + \dots + b_{Ak}X_{Ak}$$

$$\ln\left(\frac{P_B}{P_c}\right) = a_{B0} + b_{B1}X_{B1} + b_{B2}X_{B2} + \dots + b_{Bk}X_{Bk}$$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관찰변인의 기술 통계치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인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에 대한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구분		문항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반응 가능 범위	5점 환산 평균
진로 정체감	광범위한탐색	4	13.80	2.66	4	20	4-20	3.45
	구체적인탐색	5	18.52	2.78	8	25	5-25	3.70
	진로전념하기	4	14.41	2.85	5	20	4-20	3.60
	진로전념확신	5	19.41	3.00	9	25	5-25	3.88
	진로자기의심	4	11.03	3.46	4	20	4-20	2.76
	진로유동성	5	16.67	3.92	5	25	5-25	3.33
사회적 지지	정서적지지	7	27.85	3.90	7	35	7-35	3.98
	정보적지지	6	23.31	3.61	6	30	6-35	3.89
	물질적지지	6	22.91	3.57	6	30	6-35	3.82
	평가적지지	6	23.67	3.38	6	30	6-35	3.95
전공 만족도	일반적관심	6	21.86	4.47	6	30	6-35	3.64
	사회적 인식 만족	7	26.76	4.92	11	35	11-35	3.82
전공관련 직업 기대		4	15.33	2.80	4	20	4-20	3.83

진로정체감에 관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전념확신이 5점 환산평균 3.8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구체적인탐색이 3.70, 진로전념하기가 3.60, 광범위한탐색이 3.45, 진로유동성이 3.33, 진로자기의심이 2.76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지지에 관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지지가 5점 환산평균 3.89로 가장 높았으며, 평가적지지가 3.95, 정보적지지가 3.89, 물질적지지가 3.8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공만족도는 사회적 인식 만족이 3.82, 일반적관심이 3.64로 나타났다. 전공관련 직업 기대는 5점 환산평균 3.83의 수준을 보였다.

2. 사범계 대학생 진로정체감의 유형

가. 진로정체감 유형 수 선정

이 연구에서는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나타난 군집화 일정표 (Agglomeration schedule)를 이용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 값은 각 단계에서 군집화 할 때의 케이스 간의 이질성을 의미하는데 계수의 값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할 때 그 전 단계에서 군집화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수 값이 513단계에서 증가 폭이 급격하게 늘어나므로 513단계에서 정지하여 결합군집의 차이인 여섯 개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경우 VISA 모형을 주장했던 Porfeli 외(2011)가 제안한 개념적 모형에서 6개 군집이 나타났었고, 이보라 외(2014)의 VISA-K 타당화 연구에서도 6개 군집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6개의 군집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군집의 개수를 6개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IV-2> 군집화 일정표

단계	결합 군집		계수	처음 나타나는 군집의 단계		다음 단계
	군집 1	군집 2		군집 1	군집 2	
497	16	22	472.821	491	468	506
498	20	21	484.452	485	470	508
499	7	59	498.064	477	466	507
500	6	47	512.308	489	480	509
501	14	91	526.585	478	484	504
502	11	23	542.147	493	455	510
503	4	9	558.802	464	496	510
504	14	24	578.179	501	490	506
505	1	3	598.621	482	494	509
506	14	16	621.708	504	497	513
507	7	10	652.398	499	492	511
508	20	35	687.360	498	495	512
509	1	6	737.424	505	500	512
510	4	11	797.887	503	502	511
511	4	7	878.241	510	507	514
512	1	20	979.583	509	508	513
513	1	7	1142.290	512	506	514
514	1	4	1631.212	513	511	0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하여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에 대한 6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각 군집은 진로정체감을 측정하는 문항을 표준화하고, 표준화한 점수를 통해 각 하위요인 별로 평균 값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군집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군집의 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을 한 결과,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소 별로 각 군집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군집의 다변량 분산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6개 군집 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광범위한탐색	159.227	5	31.845	141.162	.000
구체적인탐색	134.401	5	26.88	129.617	.000
진로전념하기	168.539	5	33.708	156.983	.000
진로전념확신	137.297	5	27.459	127.643	.000
진로자기의심	178.732	5	35.746	150.858	.000
진로유동성	181.37	5	36.274	165.06	.000

나.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 명칭 설정

진로정체감 하위요소 별 각 군집의 Z점수의 분포는 다음 <표 IV-4>와 같다. 6번 군집이 107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2번 군집 104명, 3번 군집 95명, 1번 군집 76명, 5번 군집 69명, 4번 군집 64명 순으로 각 군집이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의 Z점수 분포를 유형별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1]과 같다.

<표 IV-4>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한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

군집	빈도	광범위한 탐색	구체적인 탐색	진로전념 하기	진로 전념확신	진로 자기의심	진로 유동성
1	76	0.47	0.72	0.91	0.83	-0.91	-0.42
2	104	0.67	0.4	-0.14	-0.07	0.62	0.66
3	95	0.07	-0.41	-0.92	-0.75	0.64	0.51
4	64	-0.86	0.17	0.47	0.53	-0.76	-1.15
5	69	-0.84	-0.94	-0.27	-0.43	-0.05	-0.4
6	107	0.01	-0.03	0.2	0.1	-0.04	0.14



[그림 IV-1]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의 Z점수 분포

위의 표와 그림을 바탕으로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광범위한 탐색, 구체적인 탐색, 진로전념하기, 진로전념확신, 진로자기의심)에 있어 각 집단에서 보이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집단 1은 광범위한탐색, 구체적인탐색의 수준은 높고, 진로전념하기 및 진로전념수준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진로자기의심과 진로유동성의 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이는 집단으로, 이는 활발한 진로탐색과 진로선택이 되어 진로재고를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이다. 이 집단은 선행연구와 진로정체감 하위요인의 특징을 바탕으로 성취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광범위한탐색, 구체적인탐색, 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의 수준은 높고 진로전념하기 및 진로전념확신의 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이는 집단으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탐색을 하면서 진로에 대하여 재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은 선행연구와 진로정체감 하위요인의 특징을 바탕으로 탐색유예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광범위한 탐색, 구체적인 탐색, 진로전념하기, 진로전념확신의 수준이 모두 낮고, 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의 수준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는 집단으로, 진로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고, 전념하지도 못한 채로 혼란스러워 하며 진

로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은 선행연구와 진로정체감 하위요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혼미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4는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광범위한 탐색, 구체적인 탐색, 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은 낮고, 진로전념하기, 진로전념확신의 수준은 높은 집단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선택은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특성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거나, 이러한 특성에 적합한 잠재적인 진로 대안들을 찾기 위해 탐색하지는 않고, 현재의 선택에 대해서 재고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이다. 따라서 이 집단은 선행연구와 진로정체감 하위요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유실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5는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진로에 대한 탐색, 전념, 재고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이다. 이 집단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집단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 전념, 재고 모두 하고 있지 않은 진로에 대해 무관심한 특성을 보이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특성에 따라 방치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6은 진로에 대한 탐색, 전념, 재고 수준이 모두 1표준편차 내에 속해있는 집단으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지 않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분화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 사범계 대학생 진로정체감의 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가. 유형간 차이 분석

1) 개인특성 변인

가) 성별

진로정체감 유형별 성별의 분포와 유형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IV-5> 참조). 진

로정체감 유형별 성별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취형은 남성이 42.1(32명)%, 여성이 57.9%(44명)로 여성이 많았으며, 탐색유예형도 남성이 32.7%(34명), 여성이 67.3%(70명)로 여성이 더 많았다. 혼미형과 유실형 역시 남성이 각각 38.9%(37명), 40.6%(26명), 여성이 각각 61.1%(58명), 59.4%(38명)로 여성이 더 많이 나타났다. 방치형의 경우 남성이 50.7%(35명), 여성이 49.3%(34명)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였고, 미분화형은 남성이 28.0%(30명), 여성이 72.0%(77명)로 다른 유형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량이 11.275일 때, 유의확률은 .046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성취	탐색유예	혼미	유실	방치	미분화
남	빈도	32	34	37	26	35	30
	백분율	42.1%	32.7%	38.9%	40.6%	50.7%	28.0%
여	빈도	44	70	58	38	34	77
	백분율	57.9%	67.3%	61.1%	59.4%	49.3%	72.0%
합계	빈도	76	104	95	64	69	107
	백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 = 11.275(df=5, p=.046)$

나) 사회적 지지

진로정체감 유형별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정서적 지지의 경우 성취형이 4.37로 가장 높았으며, 탐색유예형 4.06, 유실형 4.04, 미분화형 4.02, 혼미형 3.71, 방치형 3.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F검정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취형이 다른 유형보다 정서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탐색유예형, 유실형, 미분화형이 혼미형과 방치형보다 정서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적 지지는 성취형이 4.23으로 가장 높았으며, 탐색유예형 4.00, 유실형 3.95, 미분화형 3.91, 방치형 3.63, 혼미형 3.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F검정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취형이 방치형과 미분화형보다, 탐색유예형이 혼미형과 방치형보다, 혼미형이 성취형, 유실형, 미분화형보다 정보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물질적 지지의 경우 성취형이 4.09로 가장 높았고, 탐색유예형 3.93, 유실형 3.89, 미분화형 3.85, 혼미형과 방치형 각 3.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F검정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cheffe 사후검정 실시 결과, 성취형, 탐색유예형이 혼미형과 방치형보다, 유실형이 혼미형보다, 미분화형이 혼미형보다 물질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적 지지는 성취형 4.38, 탐색유예형 4.04, 유실형 4.02, 미분화형 3.94, 혼미형 3.69, 방치형 3.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F검정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Scheffe 사후검정 실시 결과, 성취형이 다른 유형보다 평가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탐색유예형과 미분화형이 혼미형과 방치형보다, 유실형이 방치형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6> 사회적지지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

구분	유형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Scheffe						
						a	b	c	d	e	f	
정서적 지지	a	성취	76	4.37	0.555	19.288***						
	b	탐색유예	104	4.06	0.508		*					
	c	혼미	95	3.71	0.499		*	*				
	d	유실	64	4.04	0.441		*		*			
	e	방치	69	3.68	0.598		*	*		*		
	f	미분화	107	4.02	0.481		*		*		*	
정보적 지지	a	성취	76	4.23	0.607	14.262***						
	b	탐색유예	104	4.00	0.580		*	*				
	c	혼미	95	3.60	0.574					*		
	d	유실	64	3.95	0.452							
	e	방치	69	3.63	0.580		*	*				
	f	미분화	107	3.91	0.569		*		*			
물질적 지지	a	성취	76	4.09	0.629	10.733***						
	b	탐색유예	104	3.93	0.555		*	*				
	c	혼미	95	3.57	0.574					*		
	d	유실	64	3.89	0.505							
	e	방치	69	3.57	0.602		*	*				
	f	미분화	107	3.85	0.542					*		
평가적 지지	a	성취	76	4.38	0.545	22.808***						
	b	탐색유예	104	4.04	0.503		*					
	c	혼미	95	3.69	0.516		*	*				
	d	유실	64	4.02	0.453		*		*			
	e	방치	69	3.61	0.573		*	*		*		
	f	미분화	107	3.94	0.486		*		*		*	

*p<0.05, ***p<0.001

다)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

진로정체감 유형별 전공에 대한 직업 기대의 수준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과 같다. 전공에 대한 직업 기대 수준은 성취형이 평균 4.26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실형 4.14, 미분화형 3.86, 탐색유예형 3.85, 방치형 3.58, 혼미형 3.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F검정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취형이 탐색유예형, 혼미형, 방치형, 미분화형보다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탐색유예형과 미분화형이 혼미형보다 높았으며, 유실형이 혼미형과 방치형보다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 수준이 높았다.

<표 IV-7> 전공에 대한 직업 기대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

유형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Scheffe						
					a	b	c	d	e	f	
a	성취	76	4.26	0.636	19.245***						
b	탐색유예	104	3.85	0.625		*					
c	혼미	95	3.43	0.717		*	*				
d	유실	64	4.14	0.569				*			
e	방치	69	3.58	0.694		*		*	*		
f	미분화	107	3.86	0.615		*				*	

*p<0.05, ***p<0.001

라) 진학동기

진로정체감 유형별 진학동기의 분포와 유형간 진학동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진로정체감 유형별 진학동기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취형은 내재적 동기의 비율이 86.8%(66명)로 매우 높았으며, 외재적 동기의 비율은 9.2%(7명)에 불과했다. 탐색유예형은 내재적 동기의 비율이

51.0% (53명), 외재적 동기의 비율이 47.1% (49명)로 비교적 균등했으며, 혼미형은 외재적 동기의 비율이 70.5% (67명)로 내재적 동기의 비율(25.3%, 24명)보다 높았다. 유실형은 내재적 동기의 비율이 8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방치형은 내재적 동기 52.2% (36명), 외재적 동기 44.9% (31명)로 비교적 균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미분화형의 경우, 내재적 동기가 63.6% (68명)로 외재적 동기 31.8% (34명)의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동기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량이 109.900일 때,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8> 진학동기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

구분		성취	탐색유예	혼미	유실	방치	미분화
내재적 동기	빈도	66	53	24	57	36	68
	백분율	86.8%	51.0%	25.3%	89.1%	52.2%	63.6%
외재적 동기	빈도	7	49	67	6	31	34
	백분율	9.2%	47.1%	70.5%	9.4%	44.9%	31.8%
기타	빈도	3	2	4	1	2	5
	백분율	3.9%	1.9%	4.2%	1.6%	2.9%	4.7%
합계	빈도	76	104	95	64	69	107
	백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03.900$ (df=10, p=.000)

마) 희망직업

진로정체감 유형별 희망직업의 분포와 유형간 희망직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진로정체감 유형별 희망직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취형은 교사의 비율이 82.9% (63명)로 매우 높았으며, 비교사의 비율이 15.8% (12명), 미결정 비율은 1.3% (1명)의 순이었다. 탐색유예형은 교사 63.5% (66명), 비교사 29.8% (31명), 미결정 6.7% (7명)의 순이었으며, 혼미형은 교사 46.3% (44명), 비교사 42.1% (40명), 미결정

11.6%(11명)로 교사와 비교사 간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다. 유실형은 교사 92.2%(59명), 비교사 7.8%(5명)의 순이었고 미결정은 없었다. 방치형은 교사 84.1%(58명), 비교사 14.5%(10명), 미결정 1.4%(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분화형은 교사 86.9%(93명), 비교사 11.2%(12명), 미결정 1.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직업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량이 74.594일 때,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9> 희망직업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

구분		성취	탐색유예	혼미	유실	방치	미분화
교사	빈도	63	66	44	59	58	93
	백분율	82.9%	63.5%	46.3%	92.2%	84.1%	86.9%
비교사	빈도	12	31	40	5	10	12
	백분율	15.8%	29.8%	42.1%	7.8%	14.5%	11.2%
미결정	빈도	1	7	11	0	1	2
	백분율	1.3%	6.7%	11.6%	0.0%	1.4%	1.9%
합계	빈도	76	104	95	64	69	107
	백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74.594$ (df=10, p=.000)

2) 전공특성 변인

가) 전공 만족도

진로정체감 유형별 전공 만족도의 수준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일반적 관심의 경우 성취형이 4.13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실형 3.94, 미분화형 3.74, 탐색유예형 3.57, 방치형 3.43, 혼미형 3.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F검정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취형이 탐색유예형, 혼미형, 방치형, 미분화형보다 일반적 관심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탐색유예형과 미분화형이 혼미형보다, 유실형이 혼미형과 방치형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식 만족은 성취형 4.37, 유실형 4.13, 미분화형 3.91, 탐색유예형 3.75, 방치형 3.60, 혼미형 3.33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F검정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취형이 탐색유예형, 혼미형, 방치형, 미분화형보다, 탐색유예형이 혼미형보다, 유실형이 탐색유예형과 혼미형, 방치형보다, 미분화형이 혼미형보다 사회적 인식 만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0> 전공 만족도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

구분	유형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Scheffe						
						a	b	c	d	e	f	
일반적 관심	a	성취	76	4.13	0.715	21.306***						
	b	탐색유예	104	3.57	0.689		*					
	c	혼미	95	3.18	0.724		*	*				
	d	유실	64	3.94	0.677			*	*			
	e	방치	69	3.43	0.683		*					
	f	미분화	107	3.74	0.606		*		*			
사회적 인식 만족	a	성취	76	4.37	0.582	29.392***						
	b	탐색유예	104	3.75	0.672		*					
	c	혼미	95	3.33	0.655		*	*				
	d	유실	64	4.13	0.637			*	*			
	e	방치	69	3.60	0.560		*			*		
	f	미분화	107	3.91	0.595		*		*			

*p<0.05, ***p<0.001

나)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

진로정체감 유형별 경력개발센터 이용 경험 분포와 유형간에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진로정체감 유형별 경력개발센터 이용 경험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경력개발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형은 경력개발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90.8%(69명)이었고, 탐색유예형은 83.7%(87명), 혼미형은 87.4%(83명), 유실형은 98.4%(63명), 방치형은 97.1%(67명), 미분화형은 93.5%(100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량이 16.746일 때, 유의확률은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1>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성취	탐색유예	혼미	유실	방치	미분화
있다	빈도	7	17	12	1	2	7
	백분율	9.2%	16.3%	12.6%	1.6%	2.9%	6.5%
없다	빈도	69	87	83	63	67	100
	백분율	90.8%	83.7%	87.4%	98.4%	97.1%	93.5%
합계	빈도	76	104	95	64	69	107
	백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6.746$ (df=5, p=.005)

다) 교육봉사 경험 여부

진로정체감 유형별 교육봉사 경험 경험 분포와 유형간 교육봉사 경험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진로정체감 유형별 교육봉사 경험 경험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교육봉사를 이수한 비율이 이수하지 않은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형은 교육봉사를 이수한 비율이

80.3% (61명), 이수하지 않은 비율이 19.7% (15명)이었고, 탐색유예형은 이수한 비율이 71.2% (74명), 이수하지 않은 비율이 28.8% (30명)이었으며, 혼미형은 이수한 비율이 64.2% (61명), 이수하지 않은 비율이 35.8% (34명)이었다. 유실형은 이수한 비율이 71.9% (46명), 이수하지 않은 비율이 28.1% (18명)로 나타났으며, 방치형은 이수한 비율이 56.5% (39명), 이수하지 않은 비율이 43.5% (30명)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고, 미분화형은 이수한 비율이 76.6% (82명), 이수하지 않은 비율이 23.4% (25명)이었다. 교육봉사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량이 13.785일 때, 유의확률은 .0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2> 교육봉사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성취	탐색유예	혼미	유실	방치	미분화
있다	빈도	61	74	61	46	39	82
	백분율	80.3%	71.2%	64.2%	71.9%	56.5%	76.6%
없다	빈도	15	30	34	18	30	25
	백분율	19.7%	28.8%	35.8%	28.1%	43.5%	23.4%
합계	빈도	76	104	95	64	69	107
	백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3.785$ (df=5, p=.017)

라) 임용고사 응시 의사

진로정체감 유형별 임용고사 응시 의사에 따른 분포와 유형간 임용고사 응시 의사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진로정체감 유형별 임용고사 응시 의사 분포를 살펴보면, 혼미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임용고사 응시 의사가 있는 비율이 미응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형은 응시 78.9% (60명), 미응시 15.8% (12명), 미결정 5.3% (4명)로 나타났으며, 탐색유예형은 응시 54.8% (57명), 미결정 23.1% (24명), 미

응시 22.1% (23명)로 나타났다. 혼미형은 응시가 35.8% (3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미결정이 34.7% (33명)로 나타났고, 미응시 비율은 29.5% (28명)이었다. 유실형의 경우 응시 비율이 90.6% (58명)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미응시와 미결정은 각각 7.8% (5명), 1.6% (1명)에 불과했다. 방치형은 응시 78.3% (54명), 미응시 13.0% (9명), 미결정 8.7% (6명)의 순으로 많았고, 미분화형은 응시 83.2% (89명), 미결정 9.3% (10명), 미응시 7.5% (8명)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임용고사 응시 의사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χ^2 통계량이 93.620일 때,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3> 향후 임용고사 응시 의사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성취	탐색유예	혼미	유실	방치	미분화
응시	빈도	60	57	34	58	54	89
	백분율	78.9%	54.8%	35.8%	90.6%	78.3%	83.2%
미응시	빈도	12	23	28	5	9	8
	백분율	15.8%	22.1%	29.5%	7.8%	13.0%	7.5%
미결정	빈도	4	24	33	1	6	10
	백분율	5.3%	23.1%	34.7%	1.6%	8.7%	9.3%
합계	빈도	76	104	95	64	69	107
	백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93.620$ (df=10, p=.000)

나. 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우선으로 고려할 점은 종속변인 중 한 집단을 기준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역시 종속변수인 진

로정체감 유형별 6가지 집단 중 어떤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할 것인지 우선 고려하였다. 이 때 기준집단을 설정함에 있어 관련 변인의 효과를 가장 극명하게 탐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집단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6가지 집단 중, 성취형의 집단이 유형별 차이검증 시, 유의미한 결과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집단이었으며, 6가지 진로정체감 유형 중 가장 바람직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성취형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기준집단을 설정한 후, 진로정체감 유형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차이분석 시 유의한 결과가 나온 변인을 중심으로 투입하였다. 개인특성 변인 중에서는 사회적지지 하위변인(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 진학동기, 희망직업을 투입하였으며, 전공특성 변인 중에는 전공만족도의 하위변인(일반적 관심에 대한 만족, 사회적 인식 만족),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 교육봉사 경험 여부, 향후 임용고사 응시 예정 여부를 투입하였다. 개인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 변인들 중 유의한 차이가 있는 성별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집단의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진학동기(내재적 동기=1, 외재적동기, 기타=0), 희망직업(교사=1, 비교사, 미결정=0), 경력개발센터 이용여부(이용함=1, 이용안함=0), 교육봉사여부(경험함=1, 경험안함=0), 교육실습여부(경험함=1, 경험안함=0), 임용고사 응시예정여부(응시예정=1, 응시안함, 미결정=0)를 더미변수화 하여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의 -2LL과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 모형의 -2LL의 차이를 나타내는 χ^2 값은 306.150,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으로써 연구자가 선정한 변인을 통하여 진로정체감 유형을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탐색유예형 vs. 성취형

성취형을 기준으로 탐색유예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평가적 지지, 진학동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인이 1수준 높을수록 탐색유예형에 영향을 줄 확률은 다음과 같다. 평가적 지지가 1수준 높을수록 .211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학동기가 1수준 높을수록 .203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이 1수준 높을수록 .209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는 1수준 높을수록 3.326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4> 참조).

<표 IV-14> 탐색유예형 vs. 성취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합

구분	B	표준 오차	Wald	df	유의 수준	Exp(B)	Exp(B)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개인특성 변인]								
성별	-.619	.378	2.684	1	.101	.539	.257	1.129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1.436	.779	3.394	1	.065	.238	.052	1.096
정보적 지지	.838	.682	1.508	1	.220	2.311	.607	8.797
물질적 지지	1.078	.615	3.068	1	.080	2.937	.880	9.809
평가적 지지	-1.556	.688	5.121	1	.024*	.211	.055	.812
전공직업기대	-.082	.340	.058	1	.809	.921	.473	1.794
진학동기	-1.596	.390	16.775	1	.000***	.203	.094	.435
희망직업	.762	.820	.863	1	.353	2.143	.429	10.699
[전공특성 변인]								
전공만족도								
일반적 관심에 대한 만족	.084	.376	.050	1	.823	1.088	.521	2.270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1.567	.490	10.205	1	.001**	.209	.080	.546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	1.202	.596	4.069	1	.044*	3.326	1.035	10.691
교육봉사 경험 여부	-.802	.427	3.528	1	.060	.449	.194	1.035
임용고사 응시 의사	-.975	.750	1.690	1	.194	.377	.087	1.640

*p<0.05, **p<0.01, ***p<0.001

2) 혼미형 vs. 성취형

성취형을 기준으로 혼미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평가적 지지, 진학동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교육봉사 경험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인이 1수준 높을수록 혼미형에 영향을 줄 확률은 다음과 같다. 평가적 지지가 1수준 높을수록 .137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학동기가 1수준 높을수록 .119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이 1수준 높을수록 .164배, 교육봉사 경험 여부가 1수준 높을수록 .383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5> 참조).

<표 IV-15> 혼미형 vs. 성취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합

구분	B	표준 오차	Wald	df	유의 수준	Exp(B)	Exp(B)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개인특성 변인]								
성별	-.519	.418	1.540	1	.215	.595	.262	1.351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1.483	.861	2.964	1	.085	.227	.042	1.228
정보적 지지	.341	.732	.217	1	.642	1.406	.335	5.910
물질적 지지	.897	.665	1.820	1	.177	2.453	.666	9.031
평가적 지지	-1.990	.752	7.001	1	.008**	.137	.031	.597
전공직업기대	-.621	.362	2.952	1	.086	.537	.264	1.091
진학동기	-2.130	.491	18.809	1	.000***	.119	.045	.311
희망직업	.574	.854	.452	1	.501	1.776	.333	9.473
[전공특성 변인]								
전공만족도								
일반적 관심에 대한 만족	-.033	.402	.007	1	.934	.967	.440	2.126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1.807	.520	12.079	1	.001**	.164	.059	.455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	1.062	.674	2.484	1	.115	2.892	.772	10.829
교육봉사 경험 여부	-.961	.464	4.294	1	.038*	.383	.154	.949
임용고사 응시 의사	-1.259	.793	2.518	1	.113	.284	.060	1.344

*p<0.05, **p<0.01, ***p<0.001

3) 유실형 vs. 성취형

성취형을 기준으로 유실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평가적 지지, 진학동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인이 1수준 높을수록 유실형에 영향을 줄 확률은 다음과 같다. 평가적 지지가 1수준 높을수록 .168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학동기가 1수준 높을수록 .443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이 1수준 높을수록 .343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6> 참조).

<표 IV-16> 유실형 vs. 성취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합

구분	B	표준 오차	Wald	df	유의 수준	Exp(B)	Exp(B)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개인특성 변인]								
성별	-.139	.392	.127	1	.722	.870	.404	1.874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1.253	.798	2.465	1	.116	.286	.060	1.365
정보적 지지	.432	.709	.371	1	.542	1.541	.384	6.188
물질적 지지	1.101	.634	3.011	1	.083	3.006	.867	10.424
평가적 지지	-1.782	.697	6.530	1	.011*	.168	.043	.660
전공직업기대	.204	.368	.308	1	.579	1.226	.597	2.520
진학동기	-.815	.383	4.536	1	.033*	.443	.209	.937
희망직업	.405	1.110	.133	1	.715	1.500	.170	13.205
[전공특성 변인]								
전공만족도								
일반적 관심에 대한 만족	.308	.408	.571	1	.450	1.361	.612	3.029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1.069	.519	4.245	1	.039*	.343	.124	.949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	-1.210	1.122	1.162	1	.281	.298	.033	2.692
교육봉사 경험 여부	-.399	.445	.803	1	.370	.671	.281	1.605
임용고사 응시 의사	.912	1.007	.820	1	.365	2.489	.346	17.933

*p<0.05, **p<0.01, ***p<0.001

4) 방치형 vs. 성취형

성취형을 기준으로 방치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진학동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교육봉사 경험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인이 1수준 높을수록 방치형으로 이동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정서적 지지가 1수준 높을수록 .177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질적 지지가 1수준 높을수록 4.917배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적 지지가 1수준 높을수록 .037배, 진학동기가 1수준 높을수록 .339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이 1수준 높을수록 .245배, 교육봉사 경험 여부가 1수준 높을수록 .367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7> 참조).

<표 IV-17> 방치형 vs. 성취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합

구분	B	표준 오차	Wald	df	유의 수준	Exp(B)	Exp(B)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개인특성 변인]								
성별	-.007	.422	.000	1	.988	.993	.434	2.273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1.732	.856	4.092	1	.043*	.177	.033	.948
정보적 지지	1.016	.760	1.790	1	.181	2.763	.623	12.242
물질적 지지	1.593	.684	5.425	1	.020*	4.917	1.287	18.782
평가적 지지	-3.303	.760	18.900	1	.000***	.037	.008	.163
전공직업기대	-.720	.380	3.599	1	.058	.487	.231	1.024
진학동기	-1.082	.428	6.400	1	.011*	.339	.147	.784
희망직업	1.339	.934	2.057	1	.152	3.815	.612	23.774
[전공특성 변인]								
전공만족도								
일반적 관심에 대한 만족	-.217	.417	.269	1	.604	.805	.355	1.825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1.406	.529	7.069	1	.008**	.245	.087	.691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	-.075	.920	.007	1	.935	.928	.153	5.630
교육봉사 경험 여부	-1.001	.463	4.676	1	.031*	.367	.148	.911
임용고사 응시 의사	.083	.842	.010	1	.922	1.086	.209	5.658

*p<0.05, **p<0.01, ***p<0.001

5) 미분화형 vs. 성취형

성취형을 기준으로 미분화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진학동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인이 1수준 높을수록 미분화형에 영향을 줄 확률은 다음과 같다. 물질적 지지가 1수준 높을수록 3.552배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가적 지지가 1수준 높을수록 .076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학동기가 1수준 높을수록 .342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이 1수준 높을수록 .270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8> 참조).

<표 IV-18> 미분화형 vs. 성취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합

구분	B	표준 오차	Wald	df	유의 수준	Exp(B)	Exp(B)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개인특성 변인]								
성별	-.672	.374	3.219	1	.073	.511	.245	1.064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863	.754	1.309	1	.253	.422	.096	1.850
정보적 지지	.667	.664	1.009	1	.315	1.948	.530	7.153
물질적 지지	1.267	.593	4.570	1	.033*	3.552	1.111	11.353
평가적 지지	-2.572	.662	15.081	1	.000***	.076	.021	.280
전공적입기대	-.390	.333	1.371	1	.242	.677	.352	1.301
진학동기	-1.074	.358	9.018	1	.003**	.342	.169	.689
희망직업	.990	.881	1.263	1	.261	2.691	.479	15.126
[전공특성 변인]								
전공만족도								
일반적 관심에 대한 만족	.232	.378	.376	1	.540	1.261	.601	2.643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1.311	.485	7.313	1	.007**	.270	.104	.697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	.338	.647	.272	1	.602	1.402	.394	4.984
교육봉사 경험 여부	-.381	.427	.794	1	.373	.683	.296	1.578
임용고사 응시 의사	.115	.790	.021	1	.884	1.122	.239	5.273

*p<0.05, **p<0.01, ***p<0.001

이상의 결과를 변수별로 종합하면 다음 <표 IV-19>와 같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구인인 정서적지지의 경우 성취형을 기준으로 정서적 지지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마다 방치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0.117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질적 지지의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방치형에 영향을 줄 확률 4.917배, 미분화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3.552배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적 지지의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마다 탐색유예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211배, 혼미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137배, 유실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168배, 방치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037배, 미분화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076 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동기의 경우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마다 성취형을 기준으로 탐색유예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203배, 혼미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119배, 유실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443배, 방치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339배, 미분화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342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인식에 대한 만족의 경우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마다 성취형을 기준으로 탐색유예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209배, 혼미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164배, 유실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343배, 방치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245배, 미분화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270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의 경우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성취형을 기준으로 탐색유예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3.326배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봉사 경험 여부의 경우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성취형을 기준으로 혼미형에 영향을 줄 확률이 .383배, 방치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367배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진로정체감 유형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합

구분	탐색유예형		혼미형		유실형		방치형		미분화형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개인특성 변인]										
성별	-.619	.539	-.519	.595	-.139	.870	-.007	.993	-.672	.511
사회적지지										
정서적 지지	-1.436	.238	-1.483	.227	-1.253	.286	-1.732*	.177	-.863	.422
정보적 지지	.838	2.311	.341	1.406	.432	1.541	1.016	2.763	.667	1.948
물질적 지지	1.078	2.937	.897	2.453	1.101	3.006	1.593*	4.917	1.267*	3.552
평가적 지지	-1.556*	.211	-1.990**	.137	-1.782*	.168	-3.303***	.037	-2.572***	.076
전공직업기대	-.082	.921	-.621	.537	.204	1.226	-.720	.487	-.390	.677
진학동기	-1.596***	.203	-2.130***	.119	-.815*	.443	-1.082*	.339	-1.074**	.342
희망직업	.762	2.143	.574	1.776	.405	1.500	1.339	3.815	.990	2.691
[전공특성 변인]										
전공만족도										
일반적 관심에 대한 만족	.084	1.088	-.033	.967	.308	1.361	-.217	.805	.232	1.261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1.567**	.209	-1.807**	.164	-1.069*	.343	-1.406**	.245	-1.311**	.270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	1.202*	3.326	1.062	2.892	-1.210	.298	-.075	.928	.338	1.402
교육봉사 경험 여부	-.802	.449	-.961*	.383	-.399	.671	-1.001*	.367	-.381	.683
임용고사 응시 의사	-.975	.377	-1.259	.284	.912	2.489	.083	1.086	.115	1.122
-2log Likelihood pearson chi-square Cox&Snell R ² Pseudo R-square Nagelkerke R ² McFadden R ²										
1823.935 2999.912 .485 .499 .187										
(χ ² =341.614(df=65)***) (df=2,500, p=.000)										

*p<0.05, **p<0.01, ***p<0.001

4. 연구결과에 관한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유형화하고, 진로정체감 유형과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유형과 그 특징 및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상담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진로정체감 유형에 대한 논의

첫째, 우리나라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취형, 탐색유예형, 혼미형, 유실형, 방치형, 미분화형의 총 6개의 유형이 도출이 되었다. 6가지의 유형 중 기존의 이론(porfeli et al., 2011; 이보라 외, 2014)과 성취형, 탐색유예형, 혼미형, 유실형, 미분화형의 5개의 유형은 동일한 특징을 가진 유형으로 도출 되었으며, 유일하게 방치형만이 다른 특징을 가진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방치형은 진로탐색, 진로전념, 진로재고의 수준이 모두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porfeli 외(2011), 이보라 외(2014)의 연구를 일부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진로정체감 성취형은 진로탐색의 수준이 높고, 진로전념의 수준은 매우 높으며 진로재고의 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이는 유형이다. 이는 성취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특정 진로에 대한 결정을 마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으며, 진로에 대한 의심이나 다른 대안을 탐색하기 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성취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개인특성 변인 중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가 매우 높은 편이고, 내재적인 진학동기를 가졌으며, 희망직업이 교사인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전공특성 변인 중 전공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경력 개발센터의 이용 경험 비율이 적고, 교육봉사 경험 비율이 많으며, 향후 임용고사 응시 의사가 있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정체감 탐색유예형은 진로탐색의 수준이 높고, 진로전념의 수준은 높지 않으며, 진로재고의 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유형이다. 이는 탐색유예형에 속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확신을 갖지 못하여, 또 다른 진로 대안에 대해 탐색을 하면서 진로 선택을 재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탐색유예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개인특성 변인인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가 높은 편이며, 진학동기가 내/외재적 동기인 학생과 희망직업이 교사/비교사인 학생의 비율은 비슷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특성 변인인 전공만족도는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봉사 경험이 있는 비율이 많았으며, 임용고사 응시 의사는 응시/미응시의 비율이 비슷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정체감 혼미형은 진로탐색, 진로전념의 수준이 낮고 진로재고의 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유형이다. 이는 혼미형에 속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거나 전념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확한 진로 계획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혼미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개인특성 변인인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고, 외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진학한 학생의 비율이 높으며,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특성 변인인 전공만족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경력개발센터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높고, 다른 유형에 비해 교육봉사를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높으며, 임용고사 응시 의사도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진로정체감 유실형은 진로탐색의 하위요인 가운데 광범위한 탐색의 수준은 매우 낮고, 구체적인 탐색, 진로전념의 수준은 높으며 진로재고의 수준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는 유형이다. 이는 유실형에 속

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한 탐색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타인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다른 유형보다 보다 이른 진로결정을 내린 후 전념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할 수 있다 (Marcia, 1980). 성취 지위와 비교하였을 때, 광범위한 탐색의 수준만 낮을 뿐, 구체적인 탐색 및 진로전념의 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광범위한 탐색을 통해 진로를 선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선택한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유실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개인특성 변인인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는 성취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진학한 비율이 높고, 향후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특성 변인인 전공만족도는 성취유형 다음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개발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매우 높았고, 교육봉사를 경험한 비율은 비교적 높았으며, 향후 임용고사 응시 의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진로정체감 방치형은 진로탐색, 진로전념, 진로재고의 수준이 모두 낮은 특징을 보이는 유형이다. 방치형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던 유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획을 실행하지도 않고,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지도 않는 무관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방치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개인특성 변인인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는 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희망직업이 교사인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전공특성 변인인 전공만족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고, 경력개발센터 이용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봉사를 한 경험의 유무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향후 임용고사 응시 의사가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진로정체감 미분화형은 진로탐색, 진로전념, 진로재고의 수준이 모두 1표준편차 내의 수준을 보이는 유형으로 크게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미분화형은 다

른 유형에 비해 개인특성 변인인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는 다소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진학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교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특성 변인인 전공만족도는 다소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개발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과 교육봉사를 한 경험이 보다 높았으며, 임용고사를 응시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화형은 모든 영향요인에서 다른 유형의 중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진로정체감 유형은 가장 바람직한 진로상태라고 할 수 있는 성취형의 학생이 전체의 14.8%에 불과하며, 진로를 재고하고 있는 상태인 탐색유예의 유형이 20.2%, 혼미의 유형이 18.4%의 비율로 높은 것으로 보아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맹목적인 대학 입시의 지향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사고가 지체되는 현상을 보여, 학생 스스로 정체감에 대한 확립을 구조적으로 지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유혜승, 2016; 이억범, 2007; 이현주, 2009; 최현영, 서영석, 2005)

나. 진로정체감 유형의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

진로정체감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 기대, 진학동기, 희망직업과 전공특성 변인인 전공 만족도,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 교육봉사 경험 여부, 임용고사 응시 예정 여부가 진로정체감의 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국내 사범계 대학생 진로정체감의 6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성취형(기준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지지(물질적지지,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진학동기, 전공만족도(사회적 인식 만족), 경력개발센터 이용여부, 교육봉사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적지지의 하위 변인 가운데 정서적 지지는 성취형→방치형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적 지지는 성취형→탐색유예형, 흥미형, 유실형, 방치형, 미분화형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지는 성취형→방치형, 미분화형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성취형에서 다른 유형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변인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물질적 지지의 경우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무조건적인 물질적 지지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진학동기는 성취형→탐색유예형, 흥미형, 유실형, 방치형, 미분화형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성취형 집단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진로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해석하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강하지 않은 학생은 자신의 진로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전공만족도의 하위 변인 가운데 사회적 인식 만족은 성취형→탐색유예형, 흥미형, 유실형, 방치형, 미분화형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범대생 더 나아가 예비교사에 대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사범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석가능하며,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만족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전공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등의 전공 자체에 대한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는 성취형→탐색유예형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재고의 수준이 가장 높은 탐색유예형이 자신의 진로를 다시 고민해보기 위하여 경력개발센터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범계 대학생 전체적으로 경력개발센터를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매우 적다는 결과를 보아, 진로정체감의

확립이 늦어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해볼 수 있도록 경력개발센터의 이용을 권하고, 이미 확립이 된 학생들에게도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는 것을 통해 미래에 교사로 진출한 후에 가르칠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시 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경력개발센터라는 곳이 단순히 취업을 목적으로 고학년이 방문하는 곳이 아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교육봉사 경험 여부는 성취형→혼미형, 방치형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봉사의 경험이 전공과 관련된 그 어떤 경험 가운데 교사라는 진로가 자신에게 맞는 진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기회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에 가장 강력한 경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봉사의 경험 자체가 교사라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다 확실히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교육봉사 나아가 교육실습이라는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들을 통해 교사라는 직업이 자신에게 적절한 진로인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향후 임용고사 응시 의사의 경우 유형간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각 유형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전념이 수준이 매우 낮고 진로재고의 수준이 높은 혼미형은 임용고사 응시 의사가 없는 비율이 높았고, 진로탐색, 진로전념, 진로재고의 수준이 모두 낮은 방치형의 경우 임용고사 응시 의사가 있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두 유형에서 향후 교사가 되겠다는 상반된 의사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임용고사 응시 의사가 없는 학생들은 다른 진로를 찾기 위해 진로재고의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임용고사 응시 의사가 있는 일부 학생 중에는 추후에 졸업 후 임용고사 합격만이 자신의 진로이므로 그에 대한 결과에 따른 진로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전념을 미뤄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군집분석을 통해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둘째, 국내 사범계 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과 영향요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사범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5년 기준으로 총 115,36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다.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4개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정체감, 개인특성 변인, 전공특성 변인에 대해 묻는 조사도구를 사용했으며,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개인특성 변인, 전공특성 변인의 경우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변인들을 선택하였는데, 개인 특성 변인의 경우 성별,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 기대, 진학 동기, 희망직업을 선정하였으며, 전공 특성 변인의 경우 전공만족도,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 교육봉사 경험 여부, 향후 임용고사 응시 예정 여부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10월 중순부터 2016년 12월 초까지이며,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현재 사범계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및 재학 중인 학생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우편을 통해 인쇄된 조사도구와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고 협력자가 조사도구를 학생들에게 배부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580부의 조사도구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523부가 회수(90.2%)되었으며,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15부(83.3%)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수

집된 자료는 SPSS 2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계 대학생을 진로정체감의 하위 차원인 진로탐색, 진로전념, 진로재고의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정체감 유형이 6가지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광범위한탐색, 구체적인탐색의 수준은 높고, 진로전념하기 및 진로전념수준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진로자기의심과 진로유동성의 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이는 집단으로 성취형으로 명명했으며, 두 번째 집단은 광범위한탐색, 구체적인탐색, 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의 수준은 높고 진로전념하기 및 진로전념확신의 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이는 집단으로 탐색유예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광범위한 탐색, 구체적인 탐색, 진로전념하기, 진로전념확신의 수준이 모두 낮고, 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의 수준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는 집단으로 흥미형으로 명명했으며, 네 번째 집단은 광범위한 탐색, 구체적인 탐색, 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은 낮고, 진로전념하기, 진로전념확신의 수준은 높은 집단으로 유실형으로 명명했다. 다섯 번째 집단은 광범위한 탐색, 구체적인 탐색, 진로전념하기, 진로전념확신, 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의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 방치형으로 명명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집단은 광범위한 탐색, 구체적인 탐색, 진로전념하기, 진로전념확신, 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 수준이 모두 1 표준편차 내에 속해있는 집단으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지 않는 집단으로 미분화형으로 명명했다.

둘째, 도출된 진로정체감 유형을 개인특성 변인, 전공특성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개인특성 변인 가운데에서는 성별, 사회적지지, 전공에 대한 직업기대, 진학동기, 희망직업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특성 변인은 전공 만족도,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 교육봉사 경험 여부, 임용고사 응시예정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정체감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취형’을 기준집단으로 다른 유형과의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와, 진학동기, 전공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만족,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 교육봉사 경험 여부로 총 7가지가 도출되었다.

2. 결론

이 연구는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유형화하고, 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명함으로써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성취형, 탐색유예형, 혼미형, 유실형, 방치형, 미분화형의 총 6개로 구분되었다. 이 중 방치형을 제외한 5개의 유형은 선행연구와 동일하며, 방치형의 경우는 이론에 존재하지 않는 유형으로 국내 사범계 대학생의 특징을 나타내는 유형임이 밝혀졌다. 도출된 유형을 통해 국내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을 파악해보자면, 성취형의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체의 14.76%에 불과해 진로정체감을 확립한 학생이 매우 적은 편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진로정체감이 부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혼미형과 방치형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 미분화형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 정체감의 성취와 유예를 반복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진로재고의 측면이 높은 유형은 탐색유예형, 혼미형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집단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범계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 교사라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재고의 상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지도 시 진로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이들이 다시 그 대안에 대해 탐색 및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정체감의 6개의 유형 가운데 기존의 선행연구와 5개의 유형이 기존의 이론의 유형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방치형은 기존의 유형과는 다른 우리나라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방치형은 대부분의 영향요인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치형의 절반 이상이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진학하였으며, 희망직업이 교사인 비율이 84%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오히려 교사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별다른 진로탐색 및 진로전념의 과정이 있지 않아도 졸업에 임박하여 임용고사의 합격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추후에 임용고사에서 실패하였을 경우 뒤늦게 진로정체감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진로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범계 대학생들에게 자신이 추후 임용고사를 응시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의 임용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범계 대학생 대상의 진로지도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범계 대학생들은 다양한 진로정체감 유형을 보이고 있었으며, 각 유형 별로 진로탐색, 진로전념, 진로재고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정체감의 각 하위차원별 차이를 실제로 고려하여 진로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범계 대학생은 외국의 대

학생에 비해서 진로정체감의 유형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과는 상황이 다른 한국의 구조적인 입시 문제가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교사라는 직업을 미리 결정하고 진학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범대 대학생들에게 진로정체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로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사범계 대학생을 위한 정책 마련 시 이들이 겪는 진로문제를 고려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범계 대학생은 졸업 후 교사의 임용을 목표로 입학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범계 대학생의 입학 정원과中等 교원 임용 수에 큰 차이를 보여 수급조절에 큰 문제가 있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주변 선배와 동기들과 임용고사라는 진로장벽의 인식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 때문에 진로재고의 상태를 겪는 학생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진로정체감의 유형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의 임용의 수급을 적절하게 조절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력개발 센터의 이용여부, 교육 봉사 및 교육 실습 경험여부 등이 아닌 영향요인 및 근거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요인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사범계 대학생은 다른 계열의 대학생과는 다른 학교생활 중 그들만이 겪는 특별한 경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실제로 학생의 진로정체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적인 학교생활의 경험들이 추후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로정체감 유형 가운데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유형인 방치형이 도출 되었다. 이 결과가 사범계 대학생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유형인지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사범계 대학생에게만 나타나는 유형이라면, 방치형의 학생들의 특성을 세부적

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진로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진로정체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범계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횡단적인 측면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한 후 졸업하기 까지의 과정 안에서 진로정체감이 어떤 양상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단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되면 이들의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보다 심층적으로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명희, 유영란, 유지원. (2013).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멘토링, 학습조직, 조직몰입의 영향력. **기업교육연구**, 15(2), 183-204.
- 공인규. (2008). **Holland 진로탐색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진로효능감, 진로정체감,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계현, 손진희, 김선경. (1995). 서울대 4학년 재학생 진로계획 조사연구. **학생연구**, 30(1), 64~80. 서울: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기정. (1997). **사범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및 취업 전망에 관한 실태조사**.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실, 15, 35-86.
- 김병찬. (2003). 사범대생들의 사범대학 진학동기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0(1), 57-83.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봉환, 강은희, 강혜영, 공윤정. (2013). **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선환. (2007).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진로정체감,진로결정수준,진로준비행동을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남. (2005). **전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 유형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정. (2012).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신정, 김성희. (2012).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척도 개발. **상담학 연구**, 13, 1425-1441
- 김원형. (2002). 모교 동일시에 대한 탐색적 비교 문화 연구. **산업 및 조직**, 15(2), 25-45.

-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화. (2010). **자아정체감 조기완료 대학생의 진로결정 문제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2009). 지난 5년간 사범대학생의 사회진출 조류. **교육이론과 실천**, 18, 247-260.
- 김태선. (2003). **대학생 진로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보라, 정지희, 이정림. (2014). 한국어판 진로정체감 유형 측정도구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5(3), 1163-1181.
- 이형국. (2007). **진로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중수. (2010).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개인 심리 특성 변인, 대학 생활 특성 변인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민지. (2011).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따른 진로서비스 요구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 (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정민사.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혜경. (2013).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 역량 개발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유란,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비교 연구: 진로태도성숙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525-542.
- 손보영, 윤민지, 박소현, 임제희. (2013).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 다중역할계획태도와 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일의 매개효과 :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4(2), 1189-1208.

- 송중용. (1988).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및 사회적지지가 이중과제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기웅. (2012). 사범대생들의 진로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교원교육**, 28(2), 1-22.
- 유혜승. (2014). **한국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 서울: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현실. (2014). 대학 진로교과목 수강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성격 및 성별의 중단적 효과. **열린교육연구**, 22(1), 89-111.
- 이경선. (200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엽, 김사훈. (2015). 예비교사의 교직 교육과정 수업에 대한 인식 연구. **교원교육**, 31(3), 143-165.
- 이보라, 정지희, 이정림. (2014). 한국어관 진로정체감 유형 측정도구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5(3), 1163-1181.
- 이상준. (2013). **체육교육전공 대학생의 입학동기 및 진로분석**.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영. (2007).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애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자명, 두경희. (2015). 성별에 따른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 및 역할기대차이 분석. **여성**, 20(4), 591-614.
- 이정규. (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3), 571-586.
- 이정우. (2004). 사범대생의 눈으로 본 사범대학 교육의 의미-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3(4), 107-137.
- 이현주. (2009).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위한 미술과 수업 모형 개발 연구: 사진을 활용한 자화상 캐릭터 제작활동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창환. (20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지향성 유형화와 관련 변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이슬. (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천안: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애리. (2011). **자아정체성 유형과 진로 정보 탐색에서의 확증편파**.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주. (200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의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연, 민경석. (2011). 성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차이 및 관계. **진로교육연구**, 24(3), 59-76.
- 전윤식, 이성해, 정영홍, 박선자, 김상구. (1988). 부산대학교 신입생의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보**, 24, 1-44.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정지은. (2013).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구묵. (2013). 실업자의 재취업 영향요인 연구. **비판사회정책**, 40, 251-293.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애착간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혜숙. (1999). **대학생의 학과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고용정보원. (2014). **2014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 한덕웅. (1984). 내적동기 이론의 연구 경향과 과제, **사회심리연구원**, 2(1), 54-93.
- Allen, N. J., & Meyer, J. P. (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1), 1-18.
- Adams, G. R., Bennion, L., & Huh, K. (1989).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 reference manual*. Laborator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Utah State University.

- Arthur, M. B., Hall, D. X., & Lawrence, B. S. (1989). *The handbook of career theor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istreri, E., Busch-Rossnagel, N. A., & Geisinger, K. F. (1995).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Ego Identity Process Questionnaire. *Journal of Adolescence, 18*, 179-192.
- Bennion, L. D., & Adams, G. R. (1986). A revision of the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n identity instrument for use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183-197.
- Bentler, P. M., & Chou, C. P.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6*, 78-117.
- Berzonsky, M. D. (1989). Identity styl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4*(3), 268-282.
- Betz, N. E., Harmon, L., & Borgen, F. (1996). The relationships of self-efficacy for the Holland themes to gender, occupational group membership, and vocational intere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90-98.
- Braskamp, L. A., Wise, S. L., & Hengstler, D. D. (1979).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494-498.
- Buchanan, B. (1974). Build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ocialization of managers in work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9*, 533-546.
- Bosma, H. A., & Kunnen, E. S. (2001). Determinants and mechanisms in ego identity development: A review and synthesis. *Developmental Review, 21*, 39-66.
- Demaray, M. K., & Malecki, C. K.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for students at risk.

- Psychology in the Schools*, 39(3), 305-316.
- Diemer, M.A. & Blustein, D.L. (2007). Vocational hope and vocational identity: Urba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98-118.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476-483.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 Cobb, S. (1976). Presidential Addres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¹.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reed, P., Prideaux, L., & Patton, W.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areer decisional states in adolesc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 397-412.
- Crocetti, E., Klimstra, T., Keijsers, L., Hale, W. W., & Meeus, W. (2009). Anxiety trajectories and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fiv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6), 839-849.
- Crocetti, E., Rubini, M., Luyckx, K., & Meeus, W. (2008). Identity formation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from various ethnic groups: from three dimensions to five status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8), 983-996.
- Crocetti, E., Rubini, M., & Meeus, W. (2008). Capturing the dynamics of identity formation in various ethnic groups: development and

- validation of a three dimensional model. *Journal of Adolescence*, 31(2), 207-222.
- Crocetti, E., Schwartz, S. J., Fermani, A., & Meeus, W. (2010). The Utrecht-Management of Identity Commitments Scale (U-MICS): Italian validation and crossnational comparison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6(3), 172-186.
- Demaray, M. K., & Malecki, C. K.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for students at risk. *Psychology in the Schools*, 39(3), 305-316.
- Diemer, M.A. & Blustein, D.L. (2007). Vocational hope and vocational identity: Urba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98-118.
- Earl, J. K., & Bright, J. E. 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tatus and important work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233-246.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Psychological Issues*, 1, 1-171.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Fitzgerald, L. F., & Crites, J. O. (1980). Toward a career psychology of women: What do we kno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44-62.
- Gatignon, H. (2010). *Cluster analysis. In Statistical Analysis of Management Data*(pp. 295-322). New York, NY: Springer.
- Germeijs, V., & Verschueren, K. (2006).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udy choice task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4), 449 - 471.
- Gignac, G. E. (2006). Self-reported emotional intelligence and life

- atisfaction: Testing incremental predictive validity hypotheses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in a small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1569-1577.
- Grotevant, H. D. (1987). Toward a process model of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 230-222.
- Ginzberg, E., Ginsberg, S. W., Axelro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ysbers, N. C. & Moore, E. J. (1981) *Improving Guidance Program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err, E. L., & Cramer, S. H. (1996).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New York, NY: Longman.
- Hunsberger, B., Pratt, M., & Pancer, S. M. (2001).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religious exploration and commitment. *Identity*, 1(4), 365 - 386.
- Hogg, M. A. and Turner, J. C. (1987) Intergroup behaviour, self-stereotyping and the salience of social categor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 325-340.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Holland, .L. (1977). *These directed search : A guide to educational and vocational planning*. PaloAlto, CA: Counselling Psychologist Press.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Englewood Cliffs, NJ:Prentice Hall.
- Holland, J. L., Daiger, D., & Power, P.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Johnson, R. A., & Wichern, D. W. (199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Vol.4)*.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
- Sireci,S.G.,Robin,F.,& Patelis,T.(1999). Using cluster analysis to facilitate standard setting. *Applied Measurement in Education, 12*(3), 301-325.
- Johnson, P., Buboltz, W. C., & Nichols, C. (1999). Parental divorce, family functioning, and vocational ident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6*, 137-146.
-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3*, 253-286.
- Luyckx, K., Goossens, L., Soenens, B., Beyers, W., & Vansteenkiste, M. (2005). Identity statuses based on four rather than two identity dimensions: Extending and refining Marcia's paradig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605 - 618.
- Luyckx, K., Goossens, L., & Soenens, B. (2006). A developmental contextual perspective on identity construction in emerging adulthood: Change dynamics in commitment formation and commitment evalu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2*, 366 - 380.
- Luyckx, K., Schwartz, S. J., Berzonsky, M. D., Soenens, B., Vansteenkiste, M., Smits, I., Goossens, L., et al. (2008). Capturing ruminative exploration: Extending the four-dimensional model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58 - 82.
- Luzzo, D. A. (2011).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319-322.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9(11), 159-187.

- Meeus, W. (1996). Studies on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n overview of research and some new dat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569 - 598.
- Meeus, W., Dekovic, M & Iedema, J. (1997). Unemployment and identity in adolescence: A social comparison perspectiv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369-387.
- Meeus, W., Iedema, J., Helsen, M., & Vollebergh, W. (1999). Patterns of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Review of literature and longitudin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9, 419 - 461.
- Meeus, W., Van de Schoot, R., Keijsers, L., Schwartz, S. J., & Branje, S. (2010). On the progression and stability of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 five-wave longitudinal study in early-to-middle and middle-to-late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81, 1565 - 1581.
- Meijers, F., (1998), The development of a career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0,(3), 191-207.
- Melgosa, J. (198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occupation identit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10, 385-395.
- Porfeli, E. J., Lee, B., Vondracek, F. W., & Weigold, I. K.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5), 853-871.
- Thurston, B. J., & Runco, M. A. (1999). *Flexibility. Encyclopedia of creativity*, 729 732.
- Tiede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 Taylor, K. M.(1982).An investigation of vocational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 Correlates and modera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1, 318-329.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159-187.
- Patton, W., & Porfeli, E. J. (2007). *Career exploration*.
- Porfeli, E. J. (2009). A *five-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for adolescents*. In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Denver, CO.
- Porfeli, E. J., Lee, B., Vondracek, F. W., & Weigold, I. K.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 853-871.
- Porfeli, E. J., & Skorikov, V. B. (2010). Specific and diversive Career Exploration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1), 46-58.
- Schulz, U., & Schwarzer, R. (2004). Long-term effects of spousal support on coping with cancer after surge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716 - 732.
- Schwartz, S. J. (2004). Brief report: Construct validity of two identity status measures: the EIPQ and the EOM-EIS-II. *Journal of adolescence*, *27*, 477-483.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D. E. (1961). Consistency and wisdom of vocational preference as indices of vocational maturity in the ninth grad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2*, 35-43.
- Skorikov, V. B., & Vondracek, F. W. (2007). Vocational identity. In V. B. Skorikov & W. Patton, (Eds.), *Career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143-168). Rotterdam: Sense Publishers.
- Spokane, A. L. (1991). *Career interven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mart, R., & Peterson, C. (1997). Super's career stages and the decision to change caree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1*(3), 358-374.
- Stephen, J., Fraser, E., & Marcia, J. E. (1992). Moratorium-achievement(Mama) cycles in lifespan identity development: value orientations and reasoning system correlates. *Journal of Adolescence, 15*(3), 283-300.
- Van Hoof, A. (1999). The identity status field re-reviewed. An update of unresolved and neglected issues with a view on some alternative approaches. *Developmental Review, 19*, 497-556.
- Vignoli, E., Croity Belz, S., Chapeland, V., de Fillipis, A., & Garcia, M. (2005). Career Exploration in adolescents: The role of anxiety, accachment, and parenting sty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2), 153-168.
- Vondracek, F. W. (1992). The construct of identity and its use in career theory and research.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130 - 144.
- Vondracek, F. W., Lerner, R. M., & Schulenberg, J.E. (1986). Career development: *A life-span developmental approach*. Hillsdale, NJ: ErlbaumAssociates.
- Vondracek, F. W., & Porfeli, E. (2003). World of work and careers. In G. R. Adams & M. Berzonsky (Eds.), *The Blackwell handbook of adolescence (pp.109-128)*.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Ltd.).
-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358.
- Waterman, A. S., & Archer, S. L. (1990). A life span perspective on identity formation: Developments in form, function, and process. In P. B. Baltes, D. L. Featherman, & R. M. Lerner (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pp. 29 - 5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erbel, J. D. (2000). Relationships among Career Exploration, job search intensity, and job search effectiveness in graduat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 379-394.
-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78-89*.
- Wilks, D. S. (2011). *Cluster analysis. In Statistical Methods in the Atmospheric Science* (3rd Edition, pp.603-616). Oxford, UK: Elsevier.

[부록] 조사도구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조사도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문은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요소를 확인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교육 및 지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지는 총 7면이며, **응답하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는 학교의 사적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조사도구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조사도구는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진로 및 직업교육 전공
지도교수 정진철
석사과정 박진경

【연구자 연락처】 전화: 010-7111-9568 e-mail: parkjk1007@snu.ac.kr

1.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진로에 대한 생각” 에 관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들을 읽으신 다음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조금 더 탐색해볼만 한 진로가 있을까 하여 내가 잘 모르는 진로에 대해서도 무심코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제일 흥미가 있는 직업을 위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 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선택한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진로선택을 올바르게 했는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할 지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진로 관심사는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좋아할만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9.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내 최고의 재능이 무엇인지 찾고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일에서 중요시 하는 모든 측면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진로는 내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진로계획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조금은 솔직하지 않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진로 선택은 내가 지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양한 진로에 대하여 알아보면서도 내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선택한 진로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높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가족은 내가 선택한 진로로 들어설 것이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를 잘 아는 사람들과 나의 진로 계획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나의 진로계획을 의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직업에서 추구하는 바가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여러 가지 진로 가운데서 내가 어느 것에 잘 맞을지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와 진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찾으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선택한 진로의 종사자가 되는 것은 내가 꿈꿔왔던 사람이 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선택한 진로는 내가 원하는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의 진로 목표를 변경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주위사람(가족, 친구, 교수 및 선후배 등)에게 느끼는 생각” 에 관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들을 읽으신 다음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위 사람들은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고 보살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기꺼이 마련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언제나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들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모두 존경할만한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9. 그들이 직접 나를 도와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아끼지 않고 칭찬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무슨 일이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내가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늘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함께 상의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염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모르는 일들에 관해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는 언제나 내가 그것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주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해 주고 나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내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느끼는 “나의 전공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와 관련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들을 읽으신 다음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전공의 교과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전공도서는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과(학부)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전공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전공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전공은 인기전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부모님은 나의 전공을 떳떳하게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전공 배경이 사회생활에 유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전공을 부끄럽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의 전공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전공은 내가 공부할 만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전공을 선택하고 싶어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친구들과 비교해볼 때 나의 전공이 제일 좋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느끼는 “전공 관련 미래의 직업에 대한 기대” 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전공인 교육 관련 직업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전공인 교육 관련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전공인 교육 관련 직업은 사회적으로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전공인 교육 관련 직업은 사회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 장에 계속

V. 다음은 귀하의 “**학교생활, 직업 및 진로경험**” 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1. 귀하가 사범대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기 때문에 ② 가르치는 일은 가치있다고 생각하므로
- ③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④ 타인(부모님, 선생님 등)의 권유에 의해
- ⑤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⑥ 성직에 맞춰서
- ⑦ 기타

V-2. 귀하는 재학 중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력개발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V-2-1 로) ② 없다(V-3 으로)

V-2-1. 최근 1년동안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을 몇 회 이용하였습니까?

- ① 1-3회 ② 4-6회 ③ 7-9회 ④ 10회 이상 ⑤ 최근 1년간 이용하지 않았다

V-2-2. 귀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V-3. 귀하는 학교 재학 중 교육봉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V-3-1 로) ② 없다(V-4 로)

V-3-1. 귀하는 학교 재학 중 경험한 교육봉사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V-4. 귀하는 학교 재학 중 교육실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V-4-1 로) ② 없다(V-5 로)

V-4-1. 귀하는 학교 재학 중 경험한 교육실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V-5. 귀하는 교육봉사 또는 교육실습 후에 임용고사 응시 의사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교육봉사, 교육실습 모두 아직 경험하지 않았음

☞ 응시 의사에 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V-6. 귀하는 향후 교사가 되기 위하여 임용고사에 응시할 예정이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결정 보류

Abstract

Analysis on the Career Identity Type and Influential Factors of Education Major Students in Four Year Universities

by jinkyung-Park

*Thesis for the Master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7*

Major Advisor : Jinchul Jeo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e of career identity of education major students in four year universities and analyze the differences of types and its influential factor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115,365 education major students from four year university, according to the 2016 record. The research carried out a stratified, cluster and proportional sampling, considering ratio of school location student' s major and grade. Through this process, 580 students from 7 different four year universities were sampled.

A survey was conducted to measure personal characteristic and major characteristic variables of this study. Some of

variables were measured by existing tools and others were measured by tool which we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from October 14th to December 12th, 2016. To increase the ratio of return, researcher contacted the professors who have worked at the university and students who attend the university to request for help. A total of 523 out of 58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nd 515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For classify the career Identity, three criteria were used: Career Exploration scale, Career commitment scale and Career consideration scal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lead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type of career identity. This study uses SPSS 21.0 from Windows to analyze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gression effect to career identify the type. An alpha level of 0.05 was established priori for determining the significance.

Based on the finding of the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six types of career identity of education major students in four year universities were derived, and they were named as achieved, searching moratorium, diffused, foreclosed, leave, undifferentiated type reflecting previous research and characteristics.

Second, the ratio of achieved was 14.8% of the total, and the proportion of the diffused, leave and undifferentiated type accounted for 53.7% of the total, indicating that the career

identity of education major students in four year universities in Korea is not high.

Third, the result of analysis on descriptive statistics and different verification, sex, social support, job expectations for major, Motivation for further study, desired job, major satisfaction, Whether to use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whether to experience in education service, and whether to plan to take a teacher employment exam were significant variable in the difference of career identity types.

Fourth,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hich took a reference group was 'achieved' , between reference group and 'searching moratorium groups, social support, motivation for further study, major satisfaction, Whether to use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were valid influential factors and between reference group and 'diffused' , social support, motivation for further study, major satisfaction, whether to experience in education service were valid influential factors, and between reference group and 'foreclosed' , social support, motivation for further study, major satisfaction were valid influential factors and between reference group and 'leave' , social support, motivation for further study, major satisfaction, whether to experience in education service were valid influential factors, and 'undifferentiated' social support, motivation for further study, major satisfaction were valid influential factors.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al

us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reer intervention to improve the career identity of education major students in four year universities in Korea.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y considering the career problems of the students in the education system such as the control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eachers. Third, systematic analysis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longitudinal research to identify changes in career identity patterns during the period from admission to graduation.